



2022

나의 영혼을 위한 노트

머리 글

돼지에게는 진주를 귀히 여기는 분별의 지혜가 없다.
돼지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귀한 것을 구할 이유도 없고 얻고 누릴 수도 없다.

개와 돼지의 이야기는 욕신을 좇는 우리 인생에 대한 이야기이다.

가시와 엉겅퀴도 포도와 무화과를 열매 맺을 수 없는 인생을 설명해 준다.
가시와 엉겅퀴에게 예비된 불사름이 못된 나무의 결과이고 전부이다.

인생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못된 나무인 줄 아는 분별은 생명을 얻는 지혜에 연결되어 있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 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잠3:18]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새들이 깃들고 뜨거운 날 쉴 만한 그늘을 만들어 주는 좋은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이다.

이 좋은 나무는 모든 인생에게 생명을 공급하려고 꾀함을 당하여 십자가가 되었다.

생명을 얻은 그의 백성들은 오늘도 십자가 그늘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린다.

- 18p. '좋은 나무'에서 -

2026. 5. 21 신 등국

있는 자/ 마25장/ 20220102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마25:29]

이 말씀(달란트의 비유) 속의 풍족하게 되는 자의 소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슬기 있는 다섯 처녀가 소유한 지혜는 무엇인가?

반드시 신랑이 오시지만, 그 날과 시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슬기 있는 다섯 처녀는 늘 기름을 준비하여야만 했다.

슬기 있는 다섯 처녀가 소유한 지혜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늘 기름을 준비하는 마음이다.

충성된 종의 마음도 주인의 것으로 다스려진 마음이다.

재능조차도 주인의 것이고 맡긴 달란트로 그 능력을 나타낸다.

주인의 세력에 온전히 다스려진 종의 마음에는 자기 세력이 거세되어 있다.

무익한 자신에 대한 확증이 유익한 주인의 경영을 나타낸다. *[눅17:10]

충성된 종의 마음에 주인이 있다.

종의 모양은 있지만 자신의 세력과 판단을 좇아 주인을 섬기려는 자는 그 마음에 주인이 없는, 주인을 이용하려는 악한 종이다. ☹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빌3:8-9]

물론 예수께서 비정상일 수 없다.

그러나 탄생으로부터 부활에 이르기까지 성경에 기록된 예수의 행적은 인간 세상의 규례나 기준에서 벗어난 비정상의 상황으로 가득하다.

비정상적인 판단으로 정상적인 자의 판단이 비정상적으로 보일 수 있다.

정상(正常)이란 말의 사전적인 뜻은 '특별한 변동이나 탈이 없이 제대로 인 상태'로 설명된다.

그래서 비정상(非正常)이라는 말은 주로 정상에서 벗어난상태의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지만 때로는 긍정의 강조로 '비상(非常)'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나는 예수가 믿어진 사람이다.

예수를 향한 나의 판단이 비정상인 줄 알면서 예수가 믿어졌다.

땅이 보여야 하늘이 보인다. *[요3:12]

예수의 형상이 보이면서 예수는 여전히 비정상이었다.

예수께서 열어 놓은 새롭고 산길에서 함께하는 예수는 '비상한 예수(非常耶穌)'이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빌3:8] &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꿇고자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마1:19-20]

마리아와 약혼한 요셉은 파혼을 결심하였으나 하나님의 계시와 '처녀 잉태'의 예고된 말씀에 이끌림을 받았다.

요셉은 마리아와 마찬가지로 세상의 기준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비정상적 결정을 하게 된 것이다. 이 요셉의 결정은 세상에 속한 결정이 아니다.

하나님의 계시에 대하여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마리아의 반응과, 마리아의 임신을 알게 되면서 "일을 드러내지 말고 가만히 꿇자"는 요셉의 결심은 세상에 속한 반응이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은 세상의 기준에서 벗어난 결정에 참여한다.

마리아와 요셉이 하나님 나라에 속할 수 있었던 것은 세상에 속한 기준을 거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 거부할 수 있는 세력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성령의 역사이다.

예수께서 성령으로 마리아 몸에 잉태된 것처럼 마리아와 요셉의 마음에 성령이 임하므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동방 박사와 헤롯의 만남은 어린 아기들의 살육이라는 참황(慘況)을 낳게 하였다. 이 사건은 예수의 탄생이 복되고 아름답게 기념되기에 합당하지 않은, 너무나 당혹스런 하나님의 연출이다.

더욱이 아기를 잃은 어미에게는 어떤 위로도 용납될 수 없는 처참과 비통의 흔적이 남았다.

이스라엘 백성 중 어느 누구도 영접지 않는 상황 중에 오신 이스라엘의 왕, 어린 아기들의 죽음과 연루된 생명의 주,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피해 애굽으로 갔어야 하는 유대의 왕을 이 세상의 기준으로 어떻게 헤아릴 수 있을까? ☎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취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요1:9-13]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싫어버린바 되고, 멸시를 당하고, 귀히 여김을 받지 못한 것은 이미 예고된*[사53:3] 상황이다.

이는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분별할 만한 지혜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참빛인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영접지 않는 자기 백성에게 '켜서 비취는 등불'인 요한의 증거*[요5:35]가 제시되었다.

요한의 증거는 이 세상과 인생의 정체를 분명히 드러낸다.

먼저 인생들로 하여금 예수를 알지 못하고, 싫어하고, 멸시하고, 거부하고 있는 자신의 위치를 보게 한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마3:9-10]

이 요한의 외침에서 자신의 존재를 잃지 못한다면 요한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이다.

요한의 증거를 통하여 예수가 보이고, 예수의 더 큰 증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한다.

어두운데서 빛이 비취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취셨느니라 [고후4:6] &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한알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눅17:5-6]

"**인** 곱변이라도 용서하라"는 예수의 지시에 대하여 사도들은 자신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다고 여기고 "믿음을 더하소서"라는 간구로해법을 찾았다.

그러나 예수의 회답은 양(量)이 아니라 대상과 소속(所屬)의 문제인 것을 밝히신다.

믿음의 세계는 뽕나무가 속해 있던 땅의 세력에서 뽑혀 바다의 세력에 옮겨 심겨지는 것과 같은 일이다.

땅에서 다 뽑혀지지 않고 바다의 세력을 의지하는 자는 여전히 땅에서 바다의 세력을 이용하려는 자이지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

모든 인생은 실족할 수밖에 존재로 태어났다.

스스로 실족하지 않을 수 있다고 여긴다면 지금 실족 중인 자이다.

그러나 자신을 믿는 삶 자체가 실족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그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는 통로에 선 자이다.

예수께서 제시한 믿음의 사람은 무익한 종이다.

무익한 종은 주인을 믿는 믿음으로 주인의 음성을 듣고 주인에 속한 삶을 산다.

그리고 자신은 여전히 무익하다.

자기 다리를 의지할 수 없어서 예수라는 세력의 의족으로 걸을 때 실족하지 않는 삶을 누릴 수 있다.

깨끗함을 입은 열 명의 문둥병자 중 사마리아인 문둥병자의 걸음은 하나님나라를 누리는 걸음이다. ☺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요21:15]

예수께서 부활을 예고하셨지만 제자나 예수를 따르는 자들 중에 부활을 기다리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

무덤의 돌문이 옮겨져 있고, 시체가 보이지 않고, 개켜 있는 세마포를 보면서도 부활은 믿을 수 없었다.

그들에게 예수를 향한 열심도 있고 정성도 있고 사랑도 있었겠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는 말씀이 그들의 마음 중심에 세력으로 자리 잡을 수 없었다.

주님을 향한 베드로의 열심과 정성과 사랑은 주의 말씀 앞에 거부된다.

이 베드로의 것에 하나님의 사랑*[고전13:]과 부활의 세계*[요11:25]를 담을 수 없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는 베드로를 향하여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질문으로 베드로의 마음을 이끄신다. 그리고 새 계명을 주신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13:34]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14:21]

이 하나님의 계명은 사랑이다. *[막12:31]

계명을 지키는 일은 주의 양을 먹이고 치는 일, 그 사랑을 먹고 마시는 일이다. *[요 6:54]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요일 3:23] &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롬8:26]

보이는 소망에 젖어 사는 인생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의 영에 이끌림을 받는 일은 기적과 같은 구원의 세계이다.

이 구원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이 믿어진 믿음의 구원이고, 이 믿음 안에 소망이 함께 한다. *[벧전1:21]

보이는 세계에 모든 소망을 둔 인생이 보지 못하는 세계를 사모할 수 없다.

보이는 세계에 대한 소망을 잃은 자에게 보이지 않는 세계를 향한 영적 감각이 형성된다.

과부 옷을 벗고 창기의 모습으로 시아버지와 동침할 수 있는 다말의 분별이나*[창 38:14-19], 다 망하여 돌아가는 시어머니를 붙잡는 룻에 마음에 맺혀진 소망*[룻1:16]은 보이는 세계의 담을 넘어 보이지 않는 생명의 규례에 이르게 한다.

구원 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육신의 연약함은 보이는 세계와 그 세력에 노출되어 있다.

더욱이 이 연약함은 습관적으로 육신의 욕구 안에서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으려는 구습에 익숙해 있다. *[마6:24]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자기 자신의 선택을 신뢰할 수 없는,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성령의 탄식과 간구하심이 준비되어 있다.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는 자'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 ☞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취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
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의 무겁게 멘 멩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
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사9:2-4]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300명의 군사가 135,000의 미디안 군대를 전멸한 사건
은 하나님의 전쟁에 관한 기록이다.

구체적인 내용 속에 영적 전쟁의 실체가 담겨 있다.

이 전쟁은 오늘도 하나님과 그를 따르는 이들이 참전하고 있는 진행형 전쟁이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
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
라, 평강의 왕이라 할것임이라"

하나님의 백성은 전쟁에 참여할 것이고, 전쟁 속에서 왕의 기이한 지혜와 능력을
경험하며, 결국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된다.

왕의 기묘한 능력과 지혜로운 계획은 자기 백성의 구원과 삶을 이끈다.

보리떡 한 덩어리가 십 삼만의 군영을 휘파한 것처럼 겨자씨 만한 믿음으로 산과
같은 문제가 처리되는 기이한 능력의 삶이 있다.

십자가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경이로운 지혜와 능력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지
혜와 능력이고 노래이다. ☞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마27:37]

○ 대인의 대제사장들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명(罪名)을 원하였으나 빌라도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으로 기록하였다.

당시 유대 기득 종교인들에게 예수는 거짓 그리스도이었다. 이로 인해 예수는 고소를 당하였고, 예수에 대한 빌라도의 판단은 유대 종교인들과 달랐지만 사형 판결에는 함께하였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에 대한 생각과 마음이 사람마다 다르고 죄패에 기록된 내용의 의미에 대하여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예수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명으로 심판을 받았다.

빌라도의 결정이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를 정하셨다. *[요19:11]

예수께서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기이한 죄명으로 십자가에 달리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세우신 '왕'은 십자가에 오르시고 이 '왕'을 거절하는 세력에 의해 못박히셨다.

"-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1:29]

이 유대인의 왕'에게는 대속을 위해 짊어진 '세상 죄'가 있었다.

멀리 숨어 어찌할 바를 모르는 제자들을 포함하여 자신을 거절하는 능욕의 세력의 죄까지.....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 지셨다. ☩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 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마13:44-46]

길 가 밭, 돌 밭, 가시떨기 밭에 뿌려진 씨에 대한 비유는 이 세상과 그 위에 붙어 사는 인생의 마음을 설명해 준다.

결실할 수 없는 밭은 죽음의 땅이다.
이 세상에 스스로 좋은 밭은 없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창2:5-6]

그러나 그 죽어 있는 땅을 갈아엎고 돌과 가시떨기를 걷어내는 농부가 있는 땅은 백배 육십배 결실하는 좋은 밭으로 변한다.

농부는 밭을 위해 있고 밭은 농부를 기다린다. *[사30:18]

하나님만이 반석이고 구원이고 산성이 된 사람은, 자기에게 헛되고 거짓된 것만 있는 줄 알게 된 사람이다. *[시62:7-9]

자기에게서 좋은 것이 열매 맺을 수 없는 사실이 믿어진 마음을 하나님을 귀히 여기시고 자기 소유(독생자)를 팔아 그 마음을 소유하신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소유를 다 팔아 이루어 놓은 구원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벧전2:9] &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 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롬8:14-15]

죄가 깨달아진 마음*[롬7:24]에 임한 영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더불어 율법의 요구(義)를 성취한다.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 니라 [롬8:4]

이로써 심판이 경험된 마음에게 준비된 사랑의 아들의 나라*[골1:13]는 말씀대로 흑암의 권세에서 옮겨진 아들이 누리는 구원의 세계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아들의 첫째는 독생자 예수이고, 둘째는 입양된 양자들이다.

양자(養子)의 규례는 친자(親子)가 아닌 자가 친자의 자격과 신분을 얻고 누리는 법적 혜택이다.

양자에게는 친자가 누릴 수 없는 더 감사한 세계가 있다.

친자를 십자가에 매달아 양자를 입양하시는……, 다 헤아리기 어려운 아버지의 마음의 세계이다.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말4:6] 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 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히10:26-29]

히브리서 10장 26절의 '짐짓 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29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하는 죄'로 설명되어 있다. '진리를 아는 지식',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벧후3:18]인 그의 복음을 듣고 알면서 그 복음을 무시하는 행위를 한글 성경에서는 '짐짓 죄'(kjv고의로 죄를 지으면)로 표기하고 있다.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그 진리를 무시하는 사람은 그 진리를 진리로 여기는 마음(믿음, 영)이 없는 자이다. *[롬1:28]
바꾸어 말하면, 진리를 진리로 여기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긴다.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는 은혜의 복음을 들었지만 그 말씀 속의 영을 거짓 것으로 여기는 세력에 잡혀 있는 자이다.
이 세력은 성령을 훼방하여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결과에 이른다. *[막 3:28,29]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7절까지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1/ 히10:19-25/ 하나님께 나아가 함께 하는 자

2/ 히10:26-27/ 하나님이 제시한 세계를 거부하고 소멸의 현장에 그냥 머문 자

1에 속한 자가 2의 결과가 될 수 없다.

거룩하게 된 자들은 영원히 온전케 되었기 때문이다. *[히10:14, 요일 5:16-18]

2의 결과는 1에 속하지 못하였다는, 또는 1의 세계를 거짓으로 여기는 세력에 속해 있다는 증거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 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일 5:10-12] ㅎ

인치심/엡1:13/ 20220213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3)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엡1:13]

인(印)치심이란 '도장을 찍다'는 뜻으로 "너는 내 것이다"*[사43:1]라는 확정 의미를 담고 있다.

이 확정 의 인(印)은 '약속의 성령'에 의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최종 결정이다.

이 결정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입김이고 구원의 근거이다.

사람의 신체를 섭씨 36.5도로 유지해 주는 기능이 신체 생명을 유지해 주는 것처럼, '약속의 성령'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주어진 믿음과 분별의 세력이다.

이는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는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기도 하다. *[행2:38]

그러나 아볼로가 요한의 세례를 아는 것에 머물러 있었던 것처럼*[행18:24-] 예수에 관한 지식이 많다고 하더라도 성령의 인치심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고 단언하기 어렵다.

복음이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음*[살전1:5]으로 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온전한 구원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다.

복음 안에 있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 믿음은 세상에 속한 지혜와 이성
과 노력으로 헤아려 얻을 수 있는 세력이 아니다. *[고전1:27]

도리어 육신에 속한 이해와 기대가 포기된 곳, '죄'와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판정에
다스려진 심령에게 주어지는 믿음이다.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
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
게 하려 하심이니라 [살후2:13-14]

혀로 '맛 본' 사과와 맛을 말과 글로 온전히 설명할 수 없지만,
'맛 본' 자가 그 맛에 대하여 말할 때, '맛 본' 자만이 그 말을 알아듣는다.

자신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맛 본 자가 예수의 '길과 진리와 생명'을 맛 볼 수 있
다. ☞

좋은 나무/ 마7:15-20/ 20220216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찌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마7:6-8]

돼지에게는 진주를 귀히 여기는 분별의 지혜가 없다.
이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귀한 것을 구할 이유도 없고 얻고 누릴 수도 없다.

개와 돼지의 이야기는 육신을 좇는 우리 인생에 대한 이야기이다.

가시와 엉겅퀴도 포도와 무화과를 열매 맺을 수 없는 인생을 설명해 준다.
가시와 엉겅퀴에게 예비된 불사름이 못된 나무의 결과이고 전부이다.

인생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못된 나무인 줄 아는 분별은 생명을 얻는 지혜에 연결되어 있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 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잠3:18]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새들이 깃들고 뜨거운 날 쉴 만한 그늘을 만들어 주는 좋은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이다.

이 좋은 나무는 모든 인생에게 생명을 공급하려고 꾀함을 당하여 십자가가 되었다.

생명을 얻은 그의 백성들은 오늘도 십자가 그늘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린다. ☞

여호와를 믿으니/ 창15:5-7/ 20220220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창15:5-7]

창세기 12장의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제시한, 상상으로도 헤아리기 어려운 엄청난 계약은 '떠나라'와 '되리라'이다.

본토 친척 아버 집을 떠나 북의 근원이 되는 세계가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와 법도에 이끌린 아브라함은*[창26:5] 하나님과의 계약

을 성취하고 복을 누리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은 '구원'의 세계를 설명하는 또 하나의 증거이다.

하나님과의 관계 밖에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 관계를 회복하시려고 제시한 말씀은 '떠나라'와 '되리라'이다.

여호와와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
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창15:4,5]

하나님께서 또 제시한 구체적인 약속 앞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이 머물러 있던 '엘리에셀'에서 떠나 '여호와'를 향한다.

엘리에셀을 포기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더 구체적이고 친밀한 믿음의 관계로 나아간다.

아브라함의 마음에 일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 관계를 가능케 한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믿음은 분량이 아니라 대상이다.

그리고 그 믿음은 사람의 생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대상을 향하고 구하고 의지하고 누리는 활동이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찌니라 [히11:6] &

제사장의 보기에 문둥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하였으되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까지 퍼졌 거든 그가 진찰할 것이요 문둥병이 과연 그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찌니 다 희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레13:12-13]

문둥병은 부정하지만 전신 문둥병자에게는 '정하다'는 진단이 내려진다.

하나님의 이 충격적인 결정은 다윗의 시편 속 한 구절에 담긴 기이한 내용의 기도 과 겹쳐지는 부분이 있다.

대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 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시51:3,4]

다윗은 항상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이고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는데, 어떻게 '의롭다, 순전하다'는 하나님의 판정을 확신하고 있는 것인가?

부분 문둥병자가 부정하면 전신 문둥병자는 '확실히 부정하다'는 판정이 있어야 하고,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면 '불의하다, 더럽다'는 판정이 있어야 한다는 기준이 뒤집히는 충격적인 하나님의 결정이다.

이 결정을 가능케하는 내밀한 하나님의 증거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 양식이고 자랑이고 기쁨이다.

죄악이 나를 이기었사오니 우리의 죄과를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시65:3]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롬4:25] ✚

세번째 오사 저희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이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막14:41,42]

겻 세마네의 세 번째 기도에서 예수는 자신의 요구가 아닌 하나님의 영화로운 결정*[요17:1]으로 이끌리셨다.

그리고 깨어 있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와 새로운 말씀을 하셨다.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이다.(k.j.v.죽하다)"

"깨어 있으라"는 예수의 요구는 육신이 연약하여 감당할 수 없었는데, "자고 쉬라, 죽하다"라는 예수의 말씀은 제자들이 더 이상무엇을 해야 할 일이 없는 요구이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 세 번째 요구에 대하여도 제자들은 함께 할 수 없었다.

결국 예수께서는 당시 종교 세력에 잡히시고 제자들은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였다.

"깨어 있으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 예수의 요구를 감당할 수 있는 제자는 없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감당할 수 없는 요구를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홀로 못 박히시고 부활하셨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킨 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골2:12]

"일어나라, 함께 가자!" ☩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와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뿐이라 내가 나무가지 두엇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왕상17:12]

하 나님께서 사르밧 과부로 하여금 엘리야를 공께게 하셨다.

은 땅이 가뭄에 신음하고 있는 상황에 과부와 그 아들에게 남아 있는 유일한 식량은 통에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이다.

이 음식은 과부와 아들의 생명과 연결된 가장 귀한 것일 수밖에 없다.

엘리야는 과부의 전부인 이 떡 한 조각을 요구한다.

이는 인생의 상식에서 벗어난, 강도 수준의 요구이다.

그러나 더욱 놀라운 것은 과부의 마음에 형성된, 그 유일한 음식에 대한 인식과 엘리야의 요구에 대한 반응이다.

"이 음식을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마지막 남은 소중한 음식이니까 잘 먹고 힘을 내어, 더욱이 아들의 생명과 생존을 위한 투쟁에 기력을 다해 "살아보자!"라는 상식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먹고 죽으리라"는 인식이 과부의 마음에 자리 잡았다.

이 음식을 '먹어도, 먹지 않아도 결국 죽음'이라는 과부의 마음에 형성된 분별의 지혜는 엘리야에게로 음식이 옮겨지게 하는 힘이 아니겠는가?

결국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엘리야에게로 물어 오는 것과 같은 상황이 연출되었다.

사르밧 과부의 마음에 만들어진 재물에 대한 인식은 하나님의 계획으로 만들어진 지혜이다. ☺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막 9:5]

하나님 나라와 그 권능에 대하여 우리는 어떤 이해와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베드로는 변화되신 예수의 형상을 보고 두렵고 현황한 가운데 영겁결에 초막 셋을 짓고 싶은 마음을 나타낸다.

초막 셋은 스승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하는 공간으로, 베드로 마음에 형성된 경배의 표현으로 여겨진다.

베드로에게는 예수께서 모세와 엘리야가 왜 만나고 무슨 대화가 있는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베드로는 예수의 눈부신 광채의 형상에 압도 당하였고, 어떻게 모세와 엘리야인 줄 알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두 사람의 권위에 압도 당하였다.

'초막 셋'은 하나님 나라와 그 권위에 대한 베드로의 종교성을 설명해 주고 있다.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열심과 희생과 의지이다.

그러나 지금 변형된 예수께서는 장차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일*[눅9:31], 십자가에 오르실 일, 베드로와 우리와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하시는 일에 대하여 두 사람과 대화하고 계셨다.

베드로는 자신이 하나님을 위하는 일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사랑하는 아들 예수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신다.

베드로가 하나님을 위한 초막에는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다. *[고전3:10-17]

예수께서 십자가와 부활의 권능으로 베드로를 위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셨다.

베드로가 하나님을 위하는 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위하시고 섬겨주시는 곳,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세계와 구원의 집이 베드로를 위하여 준비되어 있다. ☩

이는 저희로 마음에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어 있느니라 [골2:2-3]

비밀은 자신의 사역 속에서 겪는 큰 수고가 무엇인지를 전하므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한다.

'지식적인 동의(同意)'와 '깨달음'의 세계는 다르다.

'지식적 동의'는 그 지식을 얻은 자의 지식적 분별 아래 여전히 머물러 있는 현상이고, '깨달음'은 지금까지의 지식적 분별 영역에서 새로운 영역으로 옮겨진 결과를 나타낸다. (*니고데모와 거듭남)

만일 옮겨지지 못한 상태에서 그리스도를 전한다면 결국 '자의적 승배'*[골2:23]에 머물러 있는 자, 모양에 집중하는 종교 활동의 가증함에 휘둘리는 자가 된다. *[눅 18:10-14]

깨달음은 육적 몸을 벗는 것과 그리스도의 할례에 연결되어 있다.

손으로 하지 아니한 그리스도의 할례는 그와 함께 죽고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은 자 마음에 새겨진 흔적이다. *[갈6:17]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아 그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얻어 누리는 삶이 교회 안의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 삶은 육체 좇는 것을 이긴 자, 예수의 십자가 승리에 함께하는 자들이 누리는 세계이다. ☺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이뇨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엮드르느니라
라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찌니라 [창4:6-7]

도 생을 죽일 만큼의 분노는 그 진원지가 어디인가?

○ 창세기 4장 말씀에는 아담에게서 나온 사람들의 삶의 시작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작이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 가인의 선택과 그의 분노와 주장이 지면을 진동한다.

범죄의 진원은 죄이다.

하나님께서서는 활화산과 같은 가인을 통하여 죄와 죄의 소원과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방법과 다스리지 못한 결과를 설명해 주신다.

죄의 소원(所願), 죄의 바라는 바는 바로 가인이다.

가인의 택한 제물(祭物)과 그 수고의 댓가를 인정 받고 스스로 옳다 여김을 바라는
마음과 죄의 소원이 그 결을 같이한다. *[죄의 정육/ 롬7:5]

가인의 선택이 선이 아닌 것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신다.

그러나 가인의 마음에 엮드려 있는 죄는 하나님을 거절하게 하여 소원을 성취한
다.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죄가 죄를 짓는다. *[롬7:18-20]

아담 안의 모든 인생은 죄에 감염된 상태로 이 땅에 태어난 죄인이다.

가인은 특별히 분류된 인물이 아니다.

모든 인생의 하나님을 향하여 나타나는 현상이다.

죄의 소원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인생은 없다. 결국 죄의 종된 삶과 사망이 있을 뿐
이다.

이 사실을 전하시는 하나님께 이끌리는 자에게 준비된 구원의 세계가 아벨의 제사이다.

이 구원은 죄의 소원을 거절하지 못하고, 죄악을 이기지 못한 사람*[시65:3]을 위하여 조건 없이 열어 놓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다.

죄가 가인을 원하고, 연모하고, 갈망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원하시고 사랑하시는 바도 가인이고 우리이다.

다만 '땅의 소산'이 아니라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라고 말씀하신다. ☞

키가 작아 볼 수 없어/ 눅19:2-4/ 20220316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라 [눅19:2-4]

삭개오에게 뽕나무에 올라가야만 하였던 세 가지 이유가 성경에 설명되어 있다.

첫째는 예수를 보려고, 둘째는 키가 작아, 그리고 사람이 많아 시야를 확보하려고 뽕나무에 올랐다.

이 세 가지 이유는 그다지 특별하지 않다.

그러나 삭개오가 어린 아이가 아니라 세리장이고 부자라는 사실은 이 상황을 평범하게 여길 수 없게 한다.

세리장이라는 지위와 부자라는 신분을 가진 자가 뽕나무에 오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는 보이지 않는 사연과 세력이 있음이 분명하다.

세상의 권세나 부요함으로 작은 키의 결핍이 극복될 수 없는 것처럼, 삭개오가 삶

을 바쳐 빚어 낸 세리장과 부자라는 신분은 하나님 앞에 가릴 수도 없고 변명할 수도 없는 저주의 열매가 되었다.

키가 작아 꼭 보아야 할 것을 볼 수 없는 상황이 육체에 임한 장애(障碍)이고 저주라면, 하나님의 진리를 볼 수 없게 하는 장애는 그야말로 심연을 헤매는 영혼에 임한 저주가 아니겠는가?

모든 인생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소경으로 이 땅에 태어났다. *[요9:39]

하나님을 볼 수 없게 하는 세력은 세상도, 돈도 아니고 세상과 돈에 휘둘리는 사람의 마음에 있다.

이 저주의 세력은 장애를 장애로 여기지 못하게 하고, 저주를 저로로 여기지 못하게 하고, 장애를 정상이라고 하고, 저주를 축복이라고 포장하는 데 힘을 쏟아 내는 사람의 마음이다.

그러나 삭개오에게는 이 장애가 저주로 임하였고, 그 저주에 젖은 마음으로 뿔나무에 올랐다.

그리고 결국 거기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다. ☞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시2:10-12/ 20220320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시2:12]

하나님 나라는 소유욕으로 누릴 수 있는 세계가 아니다. *[렘2:3]
하나님 나라에는 전능자의 그늘과 안식과 만족이 있다.
더 이상의 부족함이 없는, 더 이상 받을 복이 없는 완성된 곳이다.

세상의 군왕, 민족, 관원들, 이 열방의 세력은 자신의 만족과 성취를 위하여 여호와

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한다.
하나님의 통치를 부담과 결박으로 여긴다.

열방이 그렇듯이 이미 성취된 하나님의 나라로 만족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면, 이들도 역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아니겠는가?

이 대적들을 향한 하나님이 결정은 성경 전체를 관영하고 있다.

"나는 이미 나의 왕을 세웠다."

"나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 만족을 구하는 삶의 목마름 가운데 예수를 만났다.

그리고 해갈(解渴)을 경험케 하는 예수가 누구인지 알게 되고 증거할 수 있었다.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기름 부음 받은자)가 아니냐?" [요4:29]

하나님의 통치 밖에 있던 여인은 예수를 만나 하나님의 아들과 입맞출수 있었다.
ㄴ

보디발과 바로의 요셉/ 창39:2-6, 41:40/ 20220323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창39:6]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네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 뿐이
니라 [창41:40]

보디발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심과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
그리고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위임함으로 여호와와 복을 얻었다.

그러나 보디발과 요셉의 관계는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관계이고 고용주 보디발의 권세는 결국 요셉을 잃는 데 사용된다.

반하여 바로와 요셉의 관계는 고용주의 권세(인장 반지)가 피고용주인 요셉에게 위임된 계약이다.

그리고 요셉의 통치하에 바로와 애굽은 생명을 얻는다.

보디발은 비록 요셉의 형통한 세계를 보았으나 요셉의 하나님의 세력에 다르려질 수 없었다.

바로는 자신의 꿈에 대한 요셉의 해석을 들었고, 그 해석 속에서 지존자의 권세 앞에 검불 같은 자신을 보았다.

보디발과 바로는 동일한 요셉을 만났으나 그 결과는 "요셉을 통하여 무엇을 보았는가?"에 의해 결정되었다. ☞

두 주인/ 마6:24/ 20220327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마 6:24]

재물이 많은 청년*[마19:16-]에게 재물과 영생을 함께 누리려는마음이 있는 것처럼, 모든 인생의 마음에 재물과 영원한 나라를 함께 누리려는 마음이 있다.

*[전3:11]

그리고 이 청년에게서 영생보다 재물을 더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드러난 것은, 모든 인생의 마음 중심에는 재물을 섬기는세력이 더 크게 자리잡고 있음을 설명해 준다.

이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근거를 제시해 줄 뿐만아니라 모든 사람의 마음을 잡고 있는 주인의 정체가 누구인지를 밝혀 준다.

맘몬(Mammon, 재물, 헬;맘모나스)은 의인화 된 '부(富)'의 형상이고 모든 인생의 로망이고 섬김의 대상이다.

자신의 부(富)를 위한 하나님은 말 못하는 우상이다. *[\[고전12:2\]](#)

결국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는 일은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좇는 우상 숭배*[\[골 3:5\]](#)와 같은 종교 활동이다.

우상과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다. *[\[고후6:16\]](#)

그러나 이러한 인생 중, 옥합의 기름을 예수께 부은 여인*[\[마26:7\]](#)이나 뿔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는 마음의 주인이 바뀐 결과를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다.

이 사람들은 두 주인을 섬기는 마음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섬겨주시는 영역으로 옮겨진 사람들이다.

인생이 하나님을 섬길 수 없고 하나님이 인생을 섬겨 주셨다. *[\[요일4:10\]](#)

하나님께서 자신을 섬겨주신 사실에 참여하는 자가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사는 자가 아닌가? ☞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레4장/ 20220330

만일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와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 없는 양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를 인하여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희생을 번제소에서 잡을 것이요 [레 4:27-29](#)

"**죄**를 깨닫다, 죄를 알게 되다"라는 말의 의미는 이전엔 죄인줄 모르다가 비로소 죄인 줄 알게됨을 나타낸다.

만일 죄에 대한 깨달음이 없이 속죄제를 드린다면, 이 제사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가증한 냄새가 될 것이다.

죄(罪)의 어원에서 읽을 수 있는 '과녁을 벗어나다'는 의미를 근거로 본 '죄를 깨달음'은 '벗어나 있는 상태를 알게 되어' 하나님께 고(告)하는 제사의 과정이다.

희생 제물을 태워 그 냄새를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시작이고 기본이다.

번제는 모든 육체에 대한 하나님의 판정이고 이 판정에 복종된(깨달은)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신다.

평민이 부지중에 범한 죄를 깨닫고 속죄제를 드리는 일은 매일드리는 번제의 의미를 확인하고 뚜렷이 하는 하나님의 규례이다.

성경이 제시한 죄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얻는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작이고 사권의 근거를 제공하여 준다. *¹8:8, 대하34:19

'범한 죄에 깨우침'이 없는 구원은 있을 수 없고, 하나님과의 사권도 있을 수 없다. 죄를 깨닫는 지혜는 그리스도를 깨닫는 지혜와 연결되어 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요5:46]

하나님의 마지막 제사장인 세레 요한의 증거가 마음에 있는 자에게 예수의 증거가 세워진다. *¹마21:23-27] ☞

유교병, 끊쳐지리라/ 출12:15/ 20220403

너희는 칠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찌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칠일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출12:15]

○ 월절 어린 양의 피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완벽한 설계이고, 건
II 고한 구속의 논리이고, 구원의 내밀한 근거를 제시한다.

누룩이 섞이지 않은 떡을 먹는 무교절은 이 유월절에 나타낸 피의 구속과 완전함을 보존코자 하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담은 규례이다.

누룩은 부풀리고 꾸미는 세력이다. *[눅12:1]

하나님의 결정하신 사실에 대하여 무엇을 더하거나 빼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는 성경 전체에 진동하고 있다. *[계22:18,19]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백성 중에 끊어진다*[창17:14]는 경고와 동일한 경고가 무교절 규례의 중심에 있다.

할례되지 못한 마음과 누룩 있는 떡을 먹는 자의 마음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판단에 휘둘리는 마음이다.

유교병, 부풀리고 꾸미는 허구의 세력은 오늘 우리 마음과 생각에 여전하다.

이 허구의 세력은 '없는 것'인데, '있는 것'처럼 우리를 속이고 거짓 세계를 제시하며 우리 앞에 다가온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고전5:7,8] ㄴ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 때니 이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행1:6-8]

제자들이 바라는 '이스라엘의 회복'의 구체적인 실현은 무엇인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지이다"는 기도*[마6:10]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하는 기도인가?

나는 지금 그 회복된 나라에서 살고 있는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그리스도가 아니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이길 바랐으나*[눅24:21]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리스도는 그들이 원하고 기다리는 그리스도일 수 없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 방황하는 제자들을 찾아 주시고 또 다시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신다.

창조의 목적이 영원한 안식, 제 칠일의 성취라면 아담으로 인하여 잃어버린 안식을 예수께서 회복하신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아담 안의 세계는 음부와 유명(幽冥)이다. * [잠 27:20]

이 구렁이에 빠져 있는 자기 영혼의 위치를 깨닫는 자에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의 음성이 있다. * [요5:25]

이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가 비로소 영원한 안식에 속하여 안식을 이루신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다.

이전에 아담 안에서 아담의 형상을 나타내는 삶을 살던 자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나타내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삶을 산다면,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된 삶을 누리는 자가 아닌가? ♪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 막2:9-12/ 20220410

중풍병자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행1:6-11]

자신의 모든 죄가 사함을 얻는 구원의 세계는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혈루 근원이 마른 줄 몸에 깨닫는 것*[막5:29]과 같이 마음에서 경험되는 일이다.

중풍으로 사지가 마비가 된 사람이 일어나 걸어갈 수 있으려면 막혔던 뇌 혈관이 정상으로 회복되어야 하는 것처럼,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인생이*[엡2:1,사59:2] 생명을 얻는 일도 막혔던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는 경험과 함께한다.

예수께서는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나타내셨다.

이 권세는 이 세상의 집권자들이 임의로 휘두르는 권세와 다르다.

예수는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한 대속물로 십자가에 오르셨다. *[막10:45]

이 예수의 권세 속 중심에 흐르는 공훈과 사랑은 자기 백성을 강권하여 이끌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남을 섬기는 권세를 누리게 한다. ☺

양과 염소/ 마25:34-36/ 20220413

그 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마25:34-36]

예수께서 행로에 곤하고 목말랐을 때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고*[요4:32],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갇힌 듯 있을 때 지붕을 뚫고 내려오는 중풍병자를 만났고*[막2:],
많은 무리 가운데 뿔나무에 올라 있는 삭개오를 만나 그의 집을 설 곳으로 정하셨고*[눅19:5],
회개치 않는 세상을 인하여 탄식하실 때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 가나안 여인을 만났고*[마15:21-28],
벗긴 몸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모든 능욕의 무리 가운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강도를 만났다*[눅23:39-43].

이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공통점은 하나님을 향하여 허물이 있고 죄를 지은 것 외에 아무 것도 없는 자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인정을 받는 '양의 형상'들이다.

내가 오늘 하나님 나라를 상속 받을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고 자신이 '하나님을 위하여 한 일이 있다'고 여긴다면,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에 염소로 분류될 것이다. *[눅18:11,12]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길 수 있는 자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마음으로 충성이 가능하다. *[엡3:8]

이 마음의 인생의 마음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빌2:5-8] &

사람과 짐승/ 시49편/ 20220417

- 12/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치 못함이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 17/ 저가 죽으매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 영광이 저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라
- 20/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사람이 존귀한 이유는 장구(長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장구할 수 없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장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 재물로 장구함을 누리려
한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사람은 장구(영생)하여야 사람이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
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요6:40] ✞

니고데모와 늦뱀/ 요3:12-15/ 20220420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
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3)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
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
이니라 [요3:12-15]

'거듭남'의 세계를 알지 못하는 니고데모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는 '물
과 성령', 그리고 '모세의 늦뱀처럼 인자도 들려야 한다'이다.

니고데모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 예수께서 하나님에게서 오신 분으로 알고 예수
앞에 왔지만, 물과 성령으로 말미암은*[엡1:13, 5:26, 고전15:35-50] 시각을 얻지 못하여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어두운 영역에 머물러 있다.

빛이 어두움에 비취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1:5]

어두움은 스스로 어두움인 줄 알지 못한다.

어두움이 어두움인 줄 알게 하는, 요한의 켜서 비취는 등불*[요5:35]은 땅에 대한 하
나님의 분별이다.

여전히 대적의 세력 아래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불뱀과 뱀, 저주와 구원의 세계를 나타내셨다. * [민21:]

불뱀을 제어할 수 없는 자가 뱀을 바라보는 구원에 소망을 둔다. * [시65:3]

모세의 율법은 인생의 절망적인 상태를 깨닫게 한다. * [롬3:20]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이 확정된 자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갖는다.

니고데모에게 필요한 것은 '거듭남'이다.

어두움의 영역에서 빛의 영역으로 옮겨지는 일이다.

먼저 어두움과 절망이 전부인 자신을 깨닫고, 자신의 모든 저주를 감당코자 인자가 들리실 때(율법을 완성하실 때/ *마5:17) 함께 들리는 일이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롬6:6-7] ✞

아직도 상거가 먼데/ 눅15:20-24/ 20220424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눅15:20-24]

둘째 아들의 회개된 마음과 이 아들을 위하여 준비된 아버지의 마음에는 다소의 차이가 있다.

"아직도 상거가 먼데"라는 말에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둘째와의 물리적 거리만이 아니라 그 마음의 격차를 읽을 수 있다.

둘째 아들이 겪은 고난과, 결국 깨닫게 된 자기의 모습과, 아버지를 기대하는 마음은 실제로 아들을 위하여 준비되어 있고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에 다 미치지 못한다.

다 미치지 못한 회개이지만 아버지께서는 둘째를 측은히 여겨 달려가야만 하였다.

회개가 완성이 아니다.

그 회개를 측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구원을 이룬다.

입을 티끌에 댈찌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찌로다 [애3:29]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로 자기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티끌의 위치를 회복하였다 할지라도 아직 상거가 멀다.

"나의 회개는 완벽하다!"라고 스스로 외치는 자들은 없지만, 자기의 회개를 은근히 사랑하는 자들이 있다.

패역하고 가증한 자기가 자랑스러울 수 없고 이를 알게된 것이 자랑스러울 수 없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측은히 여겨주신 결과다. ☞

가운데 섰는 여자/ 요8:3-9/ 20220427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요8:9]

예수께서 성전에 계실 때, 간음 중 현장에서 잡힌 여자가 끌려 왔다.

지금 이 곳은 모세의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세력이 폭풍처럼 몰아치는 현장이 되었다.

사람들의 손에는 여인에게 던질 돌이 준비되어 있었고, 사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중에는 이 돌이 예수를 향하고 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이어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은 거칠고 두려운 세력의 그 공간을 다른 세력으로 채웠다.

율법으로 말미암은 육체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마음에 생명의 세력이 준비되어 있다.

돌을 들었던 사람들은 율법에 의거한 삶을 살고 있지만 지극히 중요한 상황에서 법을 떠나 양심에 다스려져 물러갔다.

그러나 저주 뿐인 인생의 실체가 드러난 여인과 예수 그리스도만의 이 곳은, 변제단을 통과한 자의 '죄를 속하는 곳' 속죄소(贖罪所)이고 '은혜를 베푸는 자리' 시은좌(施恩座)이다.

예수와 그 가운데 있는 여자가 선 곳,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이룬 곳이다. ☞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요2:1-5/ 20220501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요2:3-4]

가 나 혼인 잔치 중에 예수의 때는 어느 때인가?

예수께서 포도주가 모자란 잔치집에서 포도주를 물로 만들어 즐거운 잔치가 되게 하셨다.

예수의 때가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일, 기쁘고 즐거운 잔치를 지속케 하는 일이라

면, 이 때를 위하여 준비된 '항아리 여섯 개'가 있었고, '아구까지 채울 물'이 있었고, '말을 듣는 하인'이 있었다.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바닥나지 않았다면, 그리고 빈 항아리와 채울 물과 예수의 말을 듣는 마리아와 하인, 이 세 가지가 아직 준비되어 있지 못하다면 예수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다"고 말씀하시지 않겠는가?

그리스도인의 구원이 신랑되신 예수와의 혼인 잔치를 누리는 삶이라면, 나는 오늘 기쁨과 즐거움 주는 물로 만든 포도주를 마시며 예수의 때를 즐기고 있는가? &

회개/ 눅13:1-5/ 20220504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열 여덟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눅13:4-5]

이 방인들에게 지배를 당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제사에 제물로 소모되는 이스라엘의 상황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능욕이고 고통일 것이다.

그러면 이 재앙의 끝은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 국가를 회복하는 일인가?
예수께서 제시한 해법은 고하고 묻는 사람들의 요구와는 결을 달리하고 있다.
재앙의 진원은 '회개치 않음'에 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세력 아래 다스려져서 하나님의 세력을 품고살지 못하면 그 곳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다. *[신28:15-68]

하나님의 세력을 얻지 못하는 것이 재앙이라면, 무엇이 그 세력을 얻고, 품지 못하게 하는가?

재앙의 진원지는 로마 세력이 아니고 망대가 무너진 곳이 아니다.

하나님의 세력을 얻고 누리지 못하게 하는, 회개치 못하게 하는 세력에 속한 곳이다.

그리고 '회개'는 잃었던 하나님의 세력 아래로 돌아가는 일이다. ☞

육체로 마치겠느냐/ 갈3:1-5/ 20220508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나 듣고 믿음으로나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나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갈3:2-3]

라헬은 야곱에게 속한 아내의 신분이지만 야곱에 속한 삶을 누리지 못하였다. 하나님의 오른손의 사역은 라헬에게 여상하지만 라헬의 삶의 여정은 괴로움으로 막을 내린다.

라헬은 하나님이 손 안에 옮겨진 은혜의 세계를 누리지 못하고 육체의 욕망에 휘둘린 삶의 본(本)이 되었다.

'세상 끝'에 단번의 제사로 죄를 없게 하신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은 자신도 '세상 끝'에 예수와 함께 장사된 자이다. *[히9:26]

'세상 끝'에 육적 몸을 벗은 자*[골2:11]는 육적 세력을 '가짜 세력', '죽은 것'으로 취급하며 산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끝'에 육체의 삶이 끝이 났다.

그리스도 안에 새로 피조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을 영적 출생일로 공유하며, 이 새 날을 사는 자에게 육체로 마치는(kjv. 완전해지는) 일은 있을 수 없다.

라헬의 삶은 어리석었지만, 그녀가 야곱에게 속한 아내의 신분은 유효하다. 자신의 삶을 살려는 어리석음이 야곱에 속한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였다. ☞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나 듣고 믿음으로나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나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갈3:2-3]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말을 좇아 자신을 장자인 형 에서의 모습으로 꾸미고 아버지 이삭 앞으로 나아갔다.

아버지께 준비되어 있는 아들을 위한 복은 '아들의 향취'와 만난다.

야곱이 아버지로부터 축복받기 위하여 준비된 모든 것은 어머니 리브가에 의한 것이다.

야곱이 스스로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내가 아버지께 속이는 자로 뵈일찌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그러나 야곱은 어머니의 말을 좇아 아버지 앞으로 나아갔다.

누가복음 15장의 둘째 아들도 비로소 자신이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는 자임을 알게 되었을 때 준비되어 있는 축복의 세계가 열렸다.

아들의 자격이 없는 자가 아들의 자격을 얻고 누리는 축복이 세계가 있다.

하나님께서서는 자신의 친자(親子)의 죽음을 통하여 양자(養子)를 입양하였다.

양자가 의부(義父)를 향하여 '친자의 향취'를 발한다면 의부에게 기쁨이 될 것이다.

아버지는 '아들의 향취'를 기뻐하신다. *[마3:17, 습3:17] ☞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창15:5-6]

아브람의 마음에 자리잡은 자신의 상속자는 엘리에셀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람의 마음에 받아드리기에 어려운 후사에 관한 계획을 제시하였다. 여기에서 아브람은 흘러가던 생각의 방향을 달리한다.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자신의 익숙하고 헤아릴만한 세계에서, 다 헤아릴 수 없지만 하나님의 제시한 세계로 방향을 달리하는 아브람의 마음을 하나님은 보셨다.

성경은 이 상황을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었다"고 기록해 놓았다.

이 믿음은 아브람의 원래 마음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본토, 친척, 아버 집'에 익숙한 흐름에서 방향을 달리하는 마음에 형성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다.

믿음의 원어 '아만{aw-man}'이 이사야 30장 21절에서는 '오른편 길을 취하다'는 의미로 기록되어 있다.

이 믿음의 삶은 자신의 생각에 익숙한 삶의 방향에서 역주행 하여 하나님이 준비한 세계에 몸과 마음을 던지는 삶이 아닌가? &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게는 사망으로 좇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게는 생명으로 좇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고후2:14-16]

문 동이 시몬의 집에 예수께서 계실 때, 한 여인이 향유가 든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마26:6]

향유 냄새가 그 집에 가득하였겠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냄새가 향기롭지만은 않았다.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예수께서는 그 여인의 마음을 향기로운 것으로 받으실 수 있었지만 제자들에게는 그러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여인이 알게 된 예수는 자신의 모든 죄와 허물을 처리해 주시려고 잠시 후 십자가에 오르실 분이다.

여인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 자연스레 향기로 반사되어 나타난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는 마치 엄마의 사랑 안에 안겨 있는 젖먹이가 뽀뽀 내는 젖 냄새와 같다.

결코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냄새가 아니다.

약취만 가득하던 문둥이가 사는 집에 예수가 오셨을 때, 그리스도를 알게 된 한 여인으로 인하여 그 집은 향기로 가득차게 되었다. ☺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 요5:35-39/ 20220522

요한은 커서 비취는 등불이라 너희가 일시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요5:35-36]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 아볼로에게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주었다.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행18:25]

세례 요한의 예수에 대한 증거는 모세의 율례를 근거로 한 육체와 세상에 대한 예법이고 개혁할 때까지 유효한 모형이다. *[히9:1-10]

더 큰 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는 그 영역을 달리한다.

이 영역은 손으로 짓지 아니한,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세계*[히9:11]이고 더 이상 육체의 분별이나 지혜를 요구하지 않는영역이다. *[고전2:9-10, 12:3]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요5:25]

율법의 증거는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앞에 죽어 있는 사실을 알게 해 주고, 이 증거가 있는 자에게 더 큰 증거인 하나님 아들의 음성이 들린다. *[요5:46]

죽은 자가 살아나면 부활이고 영생이다.

새로운 영역의 삶이다. ☞

삼손이 심히 목마르므로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께서 종의 손으로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의 손에 빠지겠나이다
하나님이 레히에 한 우묵한 곳을 터치시니 물이 거기서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은 엔학고레라 이 샘이 레히에 오늘까지 있더라 [삿15:18-19]

여호수아가 죽고 바알을 섬기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에 지배당하는 삶을 살게 하신다.

이스라엘 백성이 대적의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워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다.

'엔학고레'는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뜻이다.

삼손이 나귀턱뼈로 블레셋 사람 일천명을 죽인 후 심히 목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레히의 한 우묵한 곳을 터치시어 물을 마시게 하셨다.

여호와를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나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드러진 삼손에게나 그리고 육체의 연약함이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여호와를 향한 '부르짖음'은 여전히 살아 계신하나님을 경험케 한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부르짖음'이 없다면,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냈던지, 아니면 가나안 족속과 상관없이 자기 소견에 옳은대로 사는 자가 아니겠는가?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엔학고레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더러 새 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인과 악인이 활을 당기고 살을 시위에 먹임이여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시11:1-3]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피하여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았다. * [삼상21:] 그곳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거룩한 떡을 먹을 수 있었으나 골리앗의 칼을 보면서 그것이 자신을 지켜주는 데 유익한 것으로 여겼다.

다윗은 떨칠 수 없는 두려움으로 한걸음 더 나아가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도망을 간다.

그러나 그 곳 상황이 다윗이 원치 않는 국면으로 흐르자 돌연 대문쪽에 그적거리고 침을 수염에 흘리는 미치광이 모습을 연출해 낸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의인의 터'와 '터가 무너지면'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의미인가?

시편 11편에 제시된 의인의 삶과 구원의 근거는 좀 더 크고 견고하다.

그 답은 모든 것을 아시고, 분별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일, '정직한 자'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

자신의 불법과 죄악됨이 하나님께 투명하게 드러난 정직함이 이 모든 허물을 사하신 하나님의 의로움과 만난다.

'의인의 터'는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자들이 누리는 삶의 장이다. * [롬4:1-8, 시32:1-5]

의인의 터는 누리는 자, 의인에게 무너지질 수 없는 견고한 터이고, 누리지 않는 자, 모양만 의인인 자에게는 있는 줄 아는 것도 삼키는 수렁이다. * [마13:12] ☞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음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빌3:17-19]

바울의 사역 속에 눈물을 흘리며 형제들에게 권고해야만 하였던 어렵고 고통스런 문제는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들의 행태이었다.

이 원수들의 문제는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야기되는 문제이고, 은혜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흘러가는*[갈3:3] 세력에 관한 것이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경험되는 어렵고 고통스런 문제이다.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지만 좀비처럼 살아 난 자들이다.

이 좀비들은 자신의 육체를 신뢰함으로 원수*[롬5:10, 롬8:7]를 원수로 여기지 않고 십자가 원수의 길을 간다.

결국 다시 사신 그리스도에 속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자신의 입맛에 맞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려고 한다.

그리고 원수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못하므로 자신이 아는 복음으로 복음을 대적한다.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는 권고로 이 문제에 대한 대안(對案)을 제시하였다.

빌립보 3장의 바울 자신의 간증 속에 보인 하늘의 시민권(kjv. 생활 방식)을 가진 자의 삶, 구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을 사는 자들을 주목하라는 권고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 ☞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사53:12]

○ 리의 허물과 죄악을 인하여 그는 찢리고 상하였다.

┃ 우리에게 임하여야 할 징계와 채찍을 대신 받은 그로 인하여 우리는 치유와 평화의 세계를 누린다.

죄악에 물든 인생은 다 양과 같이 제 길 가기에 바쁜 삶을 살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처리해 주셔야 하였다.

그렇지만 자신의 허물과 죄악에 대한 감각과 분별이 없는 인생이*[사19:12, 렘17:9, 사6:9] 어떻게 구원의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을 수 있는가?

어둡고 미련한 인생은 허물을 담당하려고 오신 이를 범죄자 중의 하나로 취급하였지만, 하나님의 의로운 종은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그들의 죄악을 위한 속건제물이 되셨다.

이 기묘하고 경이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중에,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자들을 위한 그분의 기도가 있다.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사53:12]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눅23:34]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사람들에게 비하여 우월한 백성이 아니다 그분의 기도로 은혜를 입은 백성이다. ☩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바 저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 감이니라 저희가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들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눅22:37-38]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전대와 주머니와 그리고 검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다. 이에 제자들이 준비한 검 둘을 예수께 보였을 때, '족하다'라고 말씀하셨다.

성경에 예고된 말씀대로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기에 충분하다는 말씀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시 종교인들에게 거짓 선자자요 실패한 선지자로 여김을 받았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버림 받는 일을 족하게 여기셨다. 그리스도는 자신을 불법자로 여기고 죽이려는 자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오르신기 때문이다. *[사53:11-12]

예수께서는 '말씀대로' 되는 것에 대하여 '말씀대로' 만족히 여기셨다.

오늘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벧2:5]으로 사는 사람이 누리는 만족은 어떤 것인가?

예수처럼 세상 종교인들의 시각으로 불법자요 실패한 자들로 여김을 받는 일을 족하게 여기는 삶이 아닌가?

그리고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으로 섬기는 수고에 만족하는 삶이 아닌가? ☺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삽나이대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마8:8-9]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던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으로 눕게 되었고 백부장은 이 문제를 들고 예수께 나왔다.

백부장의 요청을 흔쾌히 받아 주시는 예수께 또 하나의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백부장에게 있었다.

"주께서 내 지붕 아래로 오심을 내가 감당할 자격이 없사온즉 오직 말씀만 하옵소서."
[마8:8 kjv.]

이 말에 담긴 백부장의 마음에서 예수는 큰 믿음을 보셨다.
그리고 그 믿음이 하인을 낫게 하였다.

명령과 복종의 세계에 익숙한 백부장에게 하인의 중풍병은 그 자신의 명령과 복종의 영역을 벗어나게 하였다.

이 다른 영역에 대하여 백부장은 무익하고 접근할 수 없고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자신을 보게 되었고, 기이하게도 이 영역에 계신 예수의 명령에 대한 신뢰가 마음에 형성되었다.

백부장의 믿음은 이 두 영역이 뚜렷이 분별되면서 형성된 하나님에 대한 신뢰이다.

이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질을 같이 한다.

믿음은 말씀 안에서 발견된 무능한 자신과 전능자에 대한 감각이고 반응이다. *^[눅 17:7-10] ㅇ

저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 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폐단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가 저에게 무엇이 유익하라 [전5:15-16]

전 도서 5장 말씀 속에서;
'낙을 누리는 삶'의 대비된 고통은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이다.

'낙을 누리는 삶'(kjv. 좋은 열매를 즐기는 것, 원어 직역; 좋은 것을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공간에서 가장 좋은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즐거워 하는 삶이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은과 풍부가 자신을 즐겁게 하는 최선으로 여긴다면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에 매몰되어 번뇌와 분노가 일상이 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아담으로 시작하여 이 구덩이에 빠진 모든 인생이 스스로 이 폐단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은 없다.

지혜와 능력은 하나님께 속하여 있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아담에게 필요한 것은 은과 풍요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빌4:12]

이 바울의 간증은 지혜와 능력을 얻은 자가 '낙을 누리는' 선하고 아름다운 세계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만일 이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에 머물러 휘둘리고 있는 자가 된다. &

심령이 가난한 자/ 마5장/ 20220619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마5:3]

"너는 흠이니 흠으로 돌아가라."는 판정에 다스려진 아담은 '생명'을 구하는 반응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을 위하여 '가죽옷'을 입혀 주셨다.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판정에 다스려진 마음이 그 다음 준비된 하나님의 세계에도 이끌림을 받는다.

산에 올라 앉으신 예수의 말씀 속 '복이 있는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이다.

복이 있고 없고의 근거가 마음의 세계에 있는 것이지 물질의 현상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 *[시1:1]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 땅의 인생 중에서는 찾을 수 없다. *[요일2:16, 전9:3, 시14:2-3]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은 이 땅에 머리돌 곳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예수께 이끌리는 자들의 마음에 만들어 지는 하나님을 향한 회개이다.

예수께서는 이를 위해 산에 올라 입을 여셨다. ☞

천국이 저희 것/ 마5:10/ 20220622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마5:10]

자신이 벗은 줄 알게 된 아담에게 자신을 가리려는 수고가 기다리고 있다.
벗은 줄 모르는 자에게는 가리려는 마음에 형성되지 않는다.

성경은 모든 인생이 천국(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소경이고 귀머거리이고 반응하지 않는 절망적인 존재*[사43:8]임을 설명하여 주고 있다.

특히 마태복음 5장의 예수께서는 모든 인생을 가리고 꾸미고 있는 위선(僞善)을 적발(摘發)하여 밝히는 율법의 진수(眞髓)를 듣게 하신다.

이 말씀 속에서 알게 된 나의 모습은 지옥행 DNA를 가지고 태어난 절망적인 존재이다.

다 헤아릴 수 없는 저주의 심연(深淵)에서 헤매던 자가 비로소 자신의 정체(正體)가 하나님 앞에 적나라(赤裸裸)하게 적신(赤身)으로 드러난 곳에서 그 말씀하시는 이의 권세에 이끌림을 받는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의나 노력으로는 결코 천국에 이를 수 없는 부족함을 고(告)하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외칠 수 있었다.

이 부족함은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하여 놓으신 온전한 것과 연결되어 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
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
은 자 되었느니라 [롬3:21]

이 완전한 하나님의 의를 얻은 자는 이 의를 얻지 못한 자들에게 핍박을 받는다. 이
핍박을 받는 일이 천국을 누리는 일 중 하나이다. ☞

너희는 자산 위에 기호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로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사13:2]

가인의 죄악이 드러난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켜주시겠다는 '표'를 주셨다.

호세아서에는 이스라엘의 회복이 "너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 곳"에서 성취된다고 기록되어 있다. *[호1:10]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인생의 하나님을 향한 패역이 드러난 곳이고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유하심과 사랑을 밝히신 곳이다.

모든 인생을 향하여 가장 존귀한 사랑을 나타낸 아들을 영접하는 자는 그 아버지께서 존귀히 여기시고 거룩히 구별된 백성으로 삼으신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시16:3]

자산(積山/ the high mountain/ 淨光的山/ 샤파하르; 벗겨진 산) 위에 기호(旗號)가 세워지는 일은, 자신의 근본이 적신(赤身)으로 드러난 자를 구별하여 존귀케 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상징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세리장이고 부자'인 삭개오가 나무에 달려 있는 모습에서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저주와 드러난 적신의 형상을 본다.

그리고 이 저주를 대신 받으려고 십자가에 적신으로 올라가실 예수 그리스도 눈에 들어 온 삭개오는, 찾고 찾던 죄인이고 그의 집(마음)에 들어가 유할 만한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다. ☞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보니 여호와의 전문 앞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이십 오인이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낮을 동으로 향하여 동방 태양에 경배하더라 [겔8:15-16]

거짓과 진실을 구별하지 못하는 무지(無知)보다도 무지를 무지가 아닌 것으로 왜곡하려는 시도는 더욱 가증한 일이다.

멸망의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지어) 그 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찌어다 [막13:14]

서지 못할 곳(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이 섰다는 뜻은 가증한 것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려는 시도가 아니겠는가?

'담무스'는 이방 신의 이름이다.

이 가증한 우상의 이름이 이스라엘 월력 중 4월의 이름이 되었다.

더욱 가증한 일은 여호와의 전 안뜰에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동방 태양을 경배하는 이십 오인의 행태이다.

이는 계시록에 기록된 하나님께 경배하는 이십 사 장로의 상징적 내용*[계4:4,10, 5:8, 11:16, 19:4]과 대치(代置)된다.

'우상(偶像)'이라는 말의 히브리어 '썬멜'은 '닮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 가증한 세력의 진원은 하나님을 닮아 보이려는 사단의 활동이 아닌가? *[겔28:2, 고후11:14]

그리고 사단은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하여 진실을 왜곡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고, 결국 인생으로 하여금 자신에게 선하고 옳은 것이 있는 줄 착각하게 한다. ☹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 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요13:10-11]

씻어도 깨끗해지지 않는 물건은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 가지처럼 버려져야 할 것이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요15:3]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말씀하셨으면 깨끗한 것으로 여기는 삶이 깨끗한 삶이고 거룩한 삶이고 열매 있는 삶이다.

사단이 넣어 주는 생각은 말씀에 대치되는 악한 세계이다.
사단은 각 사람이 지닌 선악의 분별을 근거로 말씀을 대적케 한다.

은 삼십에 예수를 판 유다와 예수를 저주하며 세 번 부인한 베드로의 죄질은 같다.

유다는 사단의 넣어 준 생각을 따라 예수를 팔았고, 스스로 정죄하였고, 스스로 목메어 죽었다.

유다가 지닌 선악을 근거로 결정한 유다의 최선이었다.

베드로도 사단이 넣어 준 생각을 따라 열심으로 예수를 쫓았고, 예수를 부인하였다.

그러나 그는 닭의 울음 소리를 들으면서 말씀을 기억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분별과 결정이 아닌 하나님의 결정에 이끌림을 받는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눅22:31-32]

베드로는 말씀에 이끌림으로 더러운 세계를 씻어버릴 수 있었으나 유다는 씻어지지 못하였다.

그리스도인의 거룩함이란, 말씀대로 더러운 것을 더러운 것으로 여기고 말씀대로 그 더러움이 씻어져 깨끗함을 누리는 세계이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벧전1:22] ☺

연자 맷돌/ 마18:1-6/ 20220706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마18:6]

연자 맷돌을 목에 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일은 상상하기도 어려운 심연의 공포와 저주의 상황을 그려 낸다.

껍질을 벗겨 속살을 드러내는 일을 맷돌이 하는 것처럼 모세의 율법은 인생의 꾸며진 외모를 벗겨 내면의 형상을 드러내 하나님 앞에 낮은 마음을 갖게 한다. 그리고 율법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의 심판을 나타낸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롬3:19-20]

이렇게 율법에는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갈3:24]의 역할이 있다.

결국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율법의 온전한 역할에 이끌린 열매들이다. *[마 5:17]

그러나 만일 그리스도의 세계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자가 있다면, 이 자는 온전한 율법의 역할에 이끌림을 받지 못한 사람이고, 온전한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이고, 온전한 율법을 전할 수 없는 사람이고, 사람을 실족케 하는 자이고 연자 멧돌을 목에 달아 깊은 바다에 던져야 할 사람이다.

율법을 깨닫지 못한 자는 죄를 깨닫지 못한 자이고 죄를 깨닫지 못한 자는 자신의 근본을 깨닫지 못한 자이다.

자신의 근본을 깨닫지 못한 자는 자신을 신뢰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고 마치 껍질을 벗기는 역할을 상실한 멧돌을 목에 매고 사는 사람과 같고, 결국 멧돌과 함께 깊은 바다에 던져질 것이다.

그러나 어제도 오늘도 실족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큰 은혜를 입어 모든 실족이 완벽하게 처리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져 영원히 온전케 되었다.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히10:14]

그렇지만 이 은혜와 자유와 온전함을 누리지 못하게 하려는 '실족케 하는 세력'이 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메지 못하던 명어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행15:10]

초대 교회에 할례를 요구하는 세력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빼앗으려는 세력이 있다.

이 세력을 나타내는 자들을 향하여 오늘도 예수께서 연자 멧돌을 목에 달고 깊은 바다에 빠짐보다 더 중한 심판을 경고하신다. ☩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히12:6-10/ 20220710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히12:6-8]

매를 맞으면서 더 엄마의 품으로 안겨 오는 어린 아이를 볼 수 있다.
이 징계의 결과는 모자(母子) 관계를 더 아름답게 장식해 줄 것이다.

하나님의 징계는 참 아들이므로 내려지는 성실한 사역이다.
권면과 꾸지람과 채찍질의 형태로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열심은 자녀들의 유익을
위하고 자신의 거룩함을 확인하고 누리게 한다.

다윗을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심은 견고한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
게 한다.
사울, 압살롬을 통하여 겪는 고통과 억울함과 참담한 상황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뚜렷하게 하였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은 알곡을 덮고 있는 껍질을 벗겨 내는 하나님의 사역과
함께 한다. *[사28:24-29]

성도의 죽음은 알곡의 껍질을 벗겨 곡간으로 옮기는 하나님의 성실한 마지막 사역
이 아니겠는가? ☞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라/ 히12:25-29/ 20220713

너희는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
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 좇아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보나
그 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번이라 하심은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의 변동 될 것을 나타내심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찌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히12:25-29]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심판과 멸망의 날이 준비되어 있다.
*[벧전1:24-25]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벧후3:7]

지구가 뜨거워져서 세상의 종말이 오는 것이 아니라 아담 안에 있는 자들에게 이미 선고된 심판의 결과이다.

하나님께서서는 소멸될 것을 소멸하신다.

모든 인생은 소멸될 육신을 입고 소멸의 현장에 태어났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자들의 불순종에 대한 형벌에 따라 소멸될 것이다. *[고후10:5-6]

이 하나님의 경교가 땅을 진동하였고, 또 땅과 하늘을 진동할 것이다.
이 두번의 진동과 그 결과로 진동치 못할 영존하는 나라가 세워진다.

이 견고한 구원의 나라는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장자들의 총회, 예수 그리스도의 뿌린 피로 온전케 된 의인들의 나라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가 소멸에서 벗어난 유일한 영역이다.
이 은혜의 나라가 아닌 모든 것은 소멸되고 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

여호수아가 가로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그것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날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 극렬한 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아골(괴로움) 골짜기라 부르더라 [수7:25-26]

아간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저주받아 무너진 여리고 성의 '바친 물건(kjv 저주받은 물건)'을 탐내어 땅에 감추었다.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아간 성 전쟁을 통하여 여호수아와 백성의 마음을 녹아내리게 하시며, 아간의 범죄를 적발하셨고, 아간과 그의 가족들을 돌로 치고 불살라 하나님의 극렬한 분노를 나타내셨다.

'아골 골짜기'는 마땅히 멸할 물건을 자신의 것으로 도적하고 사기하여 하나님을 격조케 하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아간의 범죄를 기념한다.

그러면, 오늘날 이 시대에 '아간'은 누구며, '아골 골짜기'는 어디인가?
저주 받아 하나님께 바친 물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의미는 무엇이며, 그것으로 도리어 자신을 섬기는 재료로 삼는 자의 삶은 오늘날 어떻게 나타나 있는가?

견고한 여리고 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치는 소리에 무너졌다.
이는 모든 사상이 육신을 섬기는 것으로 굳어진 한 인생의 관념이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무너져 버리면서 하나님의 세력에 정복되는 구원을 나타내는 일이 아니겠는가?

이 큰 구원의 현장에서 저주 받아 바친 물건으로 육신을 섬기는 삶을 산다면 그는 아간이다.

여리고의 시날산 외투가 아름답지만 저주받은 것이고, 여리고의 은과 금이 귀해 보이지만 저주 받은 물건이다.

하나님께서 저주한 것을 저주하지 않는 마음이 아간의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저주한 것으로 자신의 유익으로 삼는 자가 아간이다.

그리고 이 아간을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한 곳은 아골 골짜기, 괴로움이 전부이다. 만일 이 괴로움의 감각이 형성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롬8:9-11/ 20220720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롬8:11]

자기 친자(親子)를 희생양으로 삼으셔서 친자를 대적하고 능욕한 자들을 양자로 입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

이 의무(義父)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공훈과 사랑이 양자의 마음에 흘러 들어가 지혜와 분별과 능력으로 나타나는 일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일이다.

육체의 욕심과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따라가는 삶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끝내시고 공훈과 사랑을 입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엡3:4-7]

그리스도인은 육신의 생각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에 이끌리는 영역으로 옮겨진 자들이다.

하나님께서서는 육신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육신에 품부(稟賦, 선천적으로 타고남, *욥39:13-17)하지 않으셨다.

육신을 제어하는 지혜와 능력은 육신에 있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이다.

육체로 육체를 제어하는 수고, 육체의 허물을 육체로 극복하려는 수고, 결국 사망

에 이르게 하는 이 수고는 육신에 머물러 있는 자들의 몫이고 인위적 종교 활동이다.

이제 그리스도인이 입고 있는 육체는 사망을 열매 맺는 죄의 도구가 아니라 성령의 일을 나타내는 의의 병기이다. ☞

극상품 포도 나무와 들 포도/사5:1-7/ 20220724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음이여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짚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 포도를 맺혔도다 [사5:1-2]

그 극상품 포도 나무에서 좋은 포도가 아닌 들 포도가 맺힘은 타락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설명이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하는 포도원의 노래가 변하여 탄식이 되었다.

하나님의 바라시는 좋은 열매는 공평과 공의였지만, 유다는 공평을 공평으로 여기지 못하는 포학을 나타내었고 그 포학은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여 다른 신을 구하는 부르짖음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극상품 좋은 옷을 입혀 주었는데 그 옷으로 만족하지 못하여 그 옷을 입혀 주신 부모를 원망하고 다른 부모를 사모하는 자식이 있다면, 이는 행위가 부패한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습이다.

이사야서는 이를 슬퍼하는 하나님의 탄식으로 시작한다.

아담의 패역 안에 사는 인생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한 극상품의 세계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이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극상품 열매를 맺는 삶, 성령에 이끌리는 성도의 삶일 것이다.

성령이 극상품의 품질을 보증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극상품의 세계를 누릴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공급한다.

극히 아름다운 세계는 극히 가증한 세계가 경험된 자에게 유효한 것처럼 성령의 역사는 이 두가지 세계가 분별된 곳에 나타난다.

성령이 아니면 들 포도를 맺는 가증한 삶에 머물 수밖에 없다. ☞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롬11:16-21/ 20220727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롬11:16]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받지 못하여 꺾이운 이스라엘과 그 꺾이운 곳에 접붙임을 받은 이방인의 구원이 로마서 11장에 설명되어 있다.

꺾이었다는 말은 뿌리로부터 공급되는 생명과의 단절을 의미하고, 반하여 접붙임은 새 생명과의 연결을 뜻한다.

결국 가지의 생명은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뿌리에 있음이 강조된 말씀이다.

뿌리로부터 오는 생명의 세력인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있다. *[롬1:18]

울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하므로 꺾이우고 너는 믿으므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롬11:20]

진리를 거절할 만큼 높아진 마음, 다른 진리(?)에 취하여 있는 교만은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거부한다.

그러면 접붙임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이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욘 34:23-24] ☞

여호와이레/ 창22:/ 20220731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창22:13-14]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고 '구원의 사역'이다.

'관계 회복'의 구체적인 내용은 '하나님이 믿어지는 믿음의 회복'일 것이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하신 말씀은 '떠나라'와 '되리라'이다.
아브람의 본토, 친척, 아버 집을 의지하는 삶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과 대립된다.

하나님께서서는 아브람을 향하여 일하시고 결국 아브람으로 하여금 '아브람의 세계'에서 '아브라함의 세계'로 옮겨 주셨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일은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옮겨진 아브라함의 믿음을 나타내는 일이 되었다. *[히11:17-19]

'여호와이레'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려고 준비한 세계이고 믿음 있는 아브라함에게 준비된 세계이다. ☞

우리가 흠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고전15:49]

고장에서 생산된 물건이 출고되기 전에 이미 그 제품의 성능과 특성이 사용 설
○명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의 생각과 뜻의 시작과 방향과 끝이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사람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알려면 자신을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한다.

하나님께서서 사람을 아신다.

솔로몬의 지혜로운 칼이 거짓 어미의 마음과 참 어미의 마음을 드러내 갈라 놓은 것처럼*[왕상3:16-28],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의 혼과 영과 육에 관한 형상을 두 가지로 분별해 드러낸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찢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히4:12]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모든 인생이 흠에 속한 존재임을 증거한다.

이 증거를 얻은 인생에게 하늘에 속한 형상이 입혀진다.

우리가 흠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고전 15:49] **☞**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예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되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임군이 없으되 다 떼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잠30:24-28]

잠언 30장, 아굴의 잠언은 자신의 무지함과 연약함에 대한 간증으로 시작된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 바라고 구하는 두가지가 있다. 첫째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하는 삶이고 둘째는 가난도 부요함도 아닌 필요하고 적당한 양식이 있는 삶이다. 자신은 배부르면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가난하면 도적질할 인생임을 고백한다.

이 투명하고 정직한 아굴의 간증에서 우리는 큰 공감과 가르침을 얻을 수 있다.

아굴의 구하고 누리려는 세상은 무사태평이 아니라 지혜로운 삶이다. 이는 지극히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육신의 지혜*[약3:15]에 익숙한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얻고 누리는데 지혜이다.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예비하는 개미에게서 풍요로울 때 말씀에 가까이 하고 마음에 담아 놓는 그리스도인의 지혜를,
약한 종류이지만 바위 사이에 집을 짓는 사반에게서 견고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지혜를,
임군이 없으되 떼를 지어 사는 메뚜기에게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르는 지혜를,
손에 잡힐만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에게서 연약하지만 왕자의 명분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지혜를 배울 수 있다. ☺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애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싫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 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니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시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마21:28-32]

아버지를 향하여 뉘우칠 것이 있는 아들은 아버지의 뜻대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할 수 있었다.


세리와 창기는 요한의 의의 도 앞에 뉘우침이 있었고, 그 뉘우침은 요한의 도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다.

누가복음15장의 두 아들에게도 자기의 뜻을 돌이키는 뉘우침이 중심 내용 중 하나이다.

이 돌이켜 뉘우치는 세계는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렸다고 동생을 질책하는 맏아들에게 경험되지 못한 세계이다.

세리와 창기는 아담에 속한 모든 인생의 DNA에 기록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는, 조건이 형성되면 나타나게 되는 속성이다.

그리고 이 근본의 세력에 대한 분별과 믿음의 반응은 하나님과 사귀기의 시작이다

너희는 가서 내가 공황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마 9:13] 

어두운데서 빛이 비취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취셨느니라 [고후4:6]

하나님은 홀로 선하시다. * [마19:17, 롬3:4]
성경은 성경의 증거와 성경의 논리로 해석되어야 한다. * [사34:16]
그리고 그 모든 해석의 일관된 결론은 하나님의 영광인 예수 그리스도에 이른다.
* [요5:39, 계21:22]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좁은 문이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 [마7:14]

이 규례는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자의 시각으로는 일방적이고 독선(獨善)적으로 보일 수 있다.

그래서 말씀에 이끌림을 받는 자는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영역의 시각, 거듭난 영역의 시각이 필요하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요3:3]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나타났다.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다 [창1:3]"는 말씀을 시작으로 성경에 기록된 일관된 증거는 하나님의 영광인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이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취도다 [사9:2]

복음의 광채는 흑암에 행하던 백성,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의 마음에 비취었다. ♪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찌니라 [롬7:5-6]

예수께서 십자가에 오르시는 일로 겿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에게도 함께하길 부탁하였으나 제자들은 깨어 있지 못하고 잠이 들어 버렸다. 이러한 제자들에게 예수께서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고 말씀하셨다.

*[마26:41]

마음의 원함을 성취하여 줄 힘이 육신에 없다는 말씀이시다.

베드로의 원함은 목숨을 바쳐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었는데, 베드로의 육신은 그 원함을 성취하지 못하고 도리어 예수를 세 번 부인하는 쪽으로 베드로를 끌고 갔다.

베드로의 정체는 무엇인가?

로마서 7장은 이 '마음의 원함'과 함께하는 '죄의 법'의 세력을 자세히 설명하여 준다.

바울은 선을 행하기 원하는 마음에 악이 함께 있어서 원하는 바 선을 행지 못하고 악을 행하는 자신을 발견하였다.

육신에서 형성되는 하나님을 향한 모든 마음은 죄의 정욕이고, 이 정욕을 따라 할 수 있는 일은 가증한 종교 활동뿐이다.

오직 육신의 원함에 세력에 갇힌 자, 사망의 몸에 갇혀 있는 자의 탄식을 들으시는 하나님*[시102:20, 사42:7]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며 영의 새로운 것으로 이끄시며 함께하신다. ☺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고후5:15-17]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여전히 입고 있는 육신의 장막을 인한 탄식과 이 탄식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는 성령과 생명의 세력을 경험한다.
*[사35:10, 51:11]

이 땅에 피조된 인생은 자신이 자신을 위하는 삶을 살지만, 약속의 성령으로 인 (印) 처진 새로운 피조물은 자신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산다.

하나님과 결코 화목할 수 없는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새로운 피조물의 삶의 동력이다.

하나님과 화목된 자는 그 분이 공급하는 분별과 힘으로 새로이 피조된 삶, 화목케 하는 직책을 가지고 산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는 새로이 피조된 자의 마음 안에 함께 한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리스도인의 육신에 속한 것들은 죽었고, 그리스도인은 독생자 예수의 형상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양자이고 새로운 피조물이다. ☩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전15:29-34/ 20220824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세례를 받느뇨

또 어찌하여 우리가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사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전15:29-31]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님의 표상(表象)이다.

이 대표적이고 상징적인 구원의 사역은 세례(침례)라는 예법과 그 의미를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

침례의 헬라어 '바프티스마'는 '침수한다'는 의미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사는*[롬 6:4] 삶을 나타내는 예법이다.

침례가 옛 사람*[롬6:6]인 육신에 속한 개인의 삶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삶의 부활을 의미할진데, 바울은 이를 자량으로 여기며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말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거짓이고, 우리의 믿음도 거짓이다. *[고전15:16]

이 땅에 사는 동안 부활에 참여하는 삶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마 16:24], 성령에 이끌리는 삶이 아니겠는가? ☩

사랑/ 렘9:23,24/ 20220828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찌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

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와 그의 말이
니라 [렘9:23-24]

여호와가 자랑인 사람이 있고, 여호와를 아는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이 있다.

하나님이 자랑이 된 자는 자기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만족하고 즐거워 하며 살 수 있다.

그러나 자랑의 중심에 자기가 세워진 자들은 자기 행위를 통한 만족을 기대한다.

"사울은 천천이고 다윗은 만만이라"는 승전가가 사울에게 심히 불쾌하게 들리는 것은 사울의 마음 중심에 자기가 높이 세워져 있다는 증거이다.

라헬은 하나님의 권고하심으로 생명을 잉태하고 두 아들을 얻는 은혜를 입었으나 괴로움이 그녀의 삶의 마침이 되었다.

사울의 고통과 라헬의 괴로움은 그 진원이 어디인가?

누가복음 18장에 기록된 바리새인은 세리와 같이 많은 자신이 자랑스러웠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들 수 없었던 세리는 결코 자신이 자랑스럽지 못하다.

이런 세리가 얻은 하나님의 의롭다는 판정은 세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결정'으로 새겨질 것이다.

이 결정은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바리새인의 것과 다른, 자신의 행위와 상관 없는 자랑스런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이미 하나님은 자랑이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 [고후3:5] ✞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룻4:17]

사사들이 치리하는 시대, 엘리멜렉 가족이 베들레헬을 떠나 모압에 이주한 삶의 결과, 엘리멜렉과 두 아들은 죽고, 뒤에남은 세 과부들에게 새로운 삶과 선택의 기회가 주어졌다.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나오미의 선택은 베들레헬으로의 귀향이었다. 나오미의 선택은 룻기 말씀 속의 가장 중요한 의미를 지닌 터닝 포인트이다.

나오미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규례에 이끌렸고 하나님의 권고하심에 소망을 두고 베들레헬으로 돌아가는 선택을 하게 되었다. 이 선택은 남편과 두 아들의 선택과 방향을 달리 한다.

엘리멜렉은 모압을 택하였고, 아버지의 죽음 뒤에 두 아들의 결정도 여전히 모압에 머무는 삶이었다. 결국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룬의 날이 끝이 나고 나오미 가족의 삶과 선택의 결정권이 세 여자에게 옮겨졌다.

나오미의 결정은 모압을 떠나는 것이었다. 오르바는 시어머니의 결정과 잠시 함께하였으나, 시어머니가 제시한 하나님의 규례는 감당할 수 없어 모압에 머물고 말았다.

룻의 선택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같이 한다. 그녀에게 모압은 떠나야만 하는 대상이다. 이는 나오미와 함께하는 10년의 시간 속에 새겨진 것이고, 나오미의 하나님을 알게 된 결과이다.

나오미의 하나님은 모압을 떠나게 하였고, 하나님의 것에 다스려지는 나오미의 삶과 선택은 룻을 얻었게 하였다.

그리고 결국 그리스도 족보 속의 아기를 품는 양육자가 되었다. ☞

부활의 권능과 고난/ 빌3:10-12/ 20220904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좇아가노라 [빌3:10-12]

부활을 모르며 예수를 안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부활을 믿지만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다.
예수를 믿는 자의 믿음 안에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에 함께하고 있는 자신이 있어야 한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은 아직 몸의 부활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영혼의 부활(죄사함/죄인이 의인이 되는), 거듭난 삶의 권능을 누리는 자들이다.

그리고 약속의 성령으로 인(印)쳐진, 예수의 흔적*[골6:17]을 가진 그리스도인에게 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함께하는 고난이 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는 동안 필연적으로 겪어야만 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골1:24]이 있다.

이 고난을 통하여 부활의 권능을 체험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뚜렷이 하는 삶,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붙잡는 삶은 영광스런 고난에 참여하는 삶이다. ☩

재앙이 지나기까지/ 시편 57편/ 20220907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시57:1]

자신이 섬기던 사울왕이 자신을 죽이려 하는 재앙은 다윗으로 하여금 주의 날개 그들로 피하게 하였다.

그 곳에서 다윗은 '자신을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구하고, 결국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가 다윗의 마음을 덮으면서, 그 재앙에서 벗어난 확정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할 수 있었다.

사울은 다윗의 재앙인가?

사울이 제거되면 재앙도 사라지는 것인가?

다윗에게 임한 재앙의 세계는 매우 구체적이다.

날카로운 칼과 같은 이빨과 혀로 자신을 삼키려는 자의 비방, 그리고 다윗의 혼은 사자 사이에 있고 불사르는 자 중에 누었다.

그러나 다윗을 삼키려는 비방이 다윗을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이길 수 없었다.

이 두 세력의 부딪침의 결과는 인자와 진리의 하나님을 확인하고 높이고 찬양하는 다윗의 노래가 되었다. ♪

불사르는 자 중에 누웠으니 곧 인생 중에라/ 시57:4/ 20220911

내 혼이 사자 중에 처하며 내가 불사르는 자 중에 누웠으니 곧 인생 중에라 저희 이는 창과 살이요 저희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시57:4]

인생에 대하여 하나님은 육체뿐인, 가고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으로 아신다.
*[시78:39]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해석과 판정에 동의하게 되었다면, 그는 하나님께 이끌리는 자이고 함께하는 자이다.

시편 57편의 다윗은 자신을 심키려는 자의 비방을 감당할 수 없는 자신을, 그리고 이러한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의 세계로 이끌림을 받는다.

나의 때가 얼마나 단축한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인생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시89:47]

여호와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찌로다 [시107:8]

허무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기이한 일이 있다.

짧은 시간 소멸되어야 할 불붙은 떨기 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기이한 일*[출3:2]은 우리의 구원을 설명해 준다.

불사르는 자 중에 있는 자신의 형상이 뚜렷이 보인 곳에서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의 복음은 그 세력을 뚜렷이 한다. ☞

하나님과 mammon/ 마6:24/ 20220914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마 6:24]

mammon(Mammon, 헬:맘모나스/ 재물, 돈)은 의인화 된 '부(富)'의 형상이다. 그리고 이 '부의 성취'는 오늘날 이 세상 모든 인생의 로망일 것이다.

자신의 부를 실현해 줄 수 있다고 믿고 스스로 택한 신(神)이 있다면 그것이 mammon 이 아니겠는가?

만일 이 땅에서의 부귀와 영화를 누리려고 하나님을 택하였다면 그 하나님은 재신(財神)이고 mammon이다.

재물과 하나님을 함께 누리려는 마음으로 예수 앞으로 달려 온 청년*[마19:16-]은
예수의 말씀을 듣고 재물을 택하는 마음으로 물러 갔다.
인생을 한계를 드러낸 주님의 사역이시다. *[출14:12]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께 이끌리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일
에는 부귀와 영화를 구하는 수고가 용납되지 않는다. *[눅12:13-21, 요6:26-27, 요일
2:16-17]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모든 부의 시작이고 성취이며 영원한 안식이다.

여호와여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저희를 다 지으셨으니 주의
부요가 땅에 가득하니이다 [시104:24]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다. *[눅17:11-]
이를 간과하면 맘몬에 휘둘리는 삶을 산다. *[고전12:1-3] ⚓

세상의 소금/ 마5:13-16/ 20220918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마5:13]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자의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은 이 땅에 머리 둘 곳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이다.
이 마음을 가진 제자에게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신다.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된 천국 복음은 예수의 음성을 왕의 음성으로 듣고, 배워 알게
되고, 누리는 자를 위한 세계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용해되어 자신이 소금인 줄 알게 된다면

짠 맛을 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다.

소금의 짠 맛이 사람의 입에서 타액에 의해 용해되면서 생겨난 맛인 것처럼, 말씀에 젖어 용해된 마음을 향하여 하나님은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하신다.

이 짠 맛은 하나님의 미각에 의하여 결정되며,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기뻐 받으시는 맛이다.

하나님의 받으시는 것은 소금이 되려고 노력하는, 짠 맛을 내려는 인위적인 수고가 아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복종된 반응이다.

사마리아 수가 여인*[요4:]은 예수의 음성을 들으면서 비로소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고, 이전에 없었던 '맛'을 나타내었다.

예수께서도 그 맛을 보았고 마을 사람들은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 앞으로 인도되었다.

이 여인에게서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을 읽어 낼 수 있다. ☞

죽은 자와 산 자 사이/ 민16:41-48/ 20220921

아론이 모세의 명을 좇아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 간즉 백성 중에 염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염병이 그치니라 [민16:47-48]

땅이 입을 벌려 고라와 그에 속한 모든 사람과 물건을 삼키고, 여호와로부터 불이 나와 고라와 함께한 이백 오십 족장들을 소멸하였다.

이는 하나님께서 세운 모세와 아론을 거스린 저주의 결과이다.

그러나 이 상상하기도 어려운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또 다시 우리의 상상을 뛰어 넘는다.

방금 눈 앞에 펼쳐진 하나님의 진노의 잔상이 사라지기도 전에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대적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이 대적의 백성을 멸하려 할 때 아론은 향로를 취하고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였다.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악하며 네 목의 힘줄은 무쇠요 네 이마는 놋이라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 할 것이며 내 영예를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
하지 아니하리라 [사48:4-9]

백성을 위하여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아론이 섰을 때 염병이 그친 것처럼, 세상 모든 죄인과 심판하실 하나님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섰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었다. ☞

좋은 땅/ 마13:3-9/ 20220925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 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흑백배, 흑 육십배, 흑 삼십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마13:3-8]

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의 마음이 '좋은 땅'으로 비유되어 있다.

그러나 길 가, 돌밭, 가시떨기 땅을 덮고 있는 악한 세력은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한다.

사람들의 발로 다져진 길 가에 떨어진 씨는 새들에 의해 먹히고, 흙이 얇은 돌밭에 뿌려진 씨는 뿌리를 내릴 수 없어 환란과 핍박이 오면 말씀의 힘에 이끌릴 수 없고, 가시떨기 땅에 떨어진 씨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을 인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지배하는 사망의 결과에 이른다.

이 세 종류의 땅은 아담 안의 모든 인생의 형상과 결과를 설명해 주고 있다.
인생 중 '좋은 땅'으로 태어난 자는 없다. *[시53:2-3]

새와 돌과 가시떨기가 없어야 좋은 땅이 아니라 이 악한 세력을 충분히 처리해 줄 능부가 있는 땅이 좋은 땅이다.

만일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악한 세력에 덮혀 있는 자신을 깨닫게 되었다면 농부를 구하고 기다리는 마음을 갖지 아니했는가?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대저 여호와와 공의의 하나님이심이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사30:18] ㄴ

단번에 주신 믿음/ 유1:1-4/ 20220928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색욕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재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유1:3-4]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주신 '믿음의 도'는 성도를 지키는 세력이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지혜이다.

이 믿음은 단번에, 한차례 주신 믿음이고, 죄인을 의인의 영역으로 옮긴 강력한 힘

이고 의인의 삶을 지키는 보장이다.

이 뜻을 좇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
노라 [히10:10]

그러나 이 복되고 아름다운 은혜의 세계를 색욕거리로 바꾸려는 '가만히 교회 안에
들어온 세력'이 있다. *[갈2:4, 벧후2:1]

교회의 내부에서 가만히 형성된 이 세력의 역할은 결국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
는 일*[히10:29]이다.

교회 안의 거짓 목자는 거룩함을 입은 성도의 기쁨을 돕는 일이 아니라 성도의 믿
음을 주관*[고후1:24]하려 한다.

결국 교회 안에 용납될 수 없는 육신의 세력과 복음을 빙자한 법의 굴레 아래 성도
들을 몰아 간다.

성령의 일을 자신이 대신하려고 하는 이들은 '애찬의 암초, 몸만 기르는 목자, 뿌리
없이 열매 없는 가을 나무, 수치를 뿜어대는 물결이고 흑암에 해매는 유리하는 별
이다.

이 악한 세력은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자를 통해 일을 하며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자는 이미 단번에 주신 거룩한 믿음을 저버린 자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자들의 마음에 일하시는 성령께서 단번에
주신 믿음을 보존하여 주신다. ☩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딘전1:3-11/ 20221002

알것은 이것이니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치 아니하는 자며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며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며 아버지를 치는 자와 어머니를 치는 자며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며 남색하는 자며 사람을 탈취하는 자며 거짓말 하는 자며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좃음이니라 [딘전1:9-11]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법이 아담에게 임하였을 때, 이 법은 아담 안에 있는 '법을 무시하는, 복종치 아니하는 세력'을 드러내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 죄인 아담을 위하여 세상 끝에 마지막 아담을 보내시고[고전15:45],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자들의 공동체이다.

디모데전서는 에베소 교회 안에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을 경고하는 내용으로 시작된다.

스스로 깨닫지도 못하는 율법을 가르치려는 거짓 교사들에게 바울이 설명하여 주는 하나님의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다'이었다.

율법은 의로운 사람으로 인해 만들어지지 않고 14가지로 열거한 불법한 죄인을 위하여 입법되었다.

그리고 바울은 옳지 않은 자신 구원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한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딘전1:15]

옳지 않은자, 죄를 이길 수 없는 자를 위하여 예수께서 십자가에 오르셨다.

미쁘다 이 말이며,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यो [딤후2:11]

죄인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의인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는 하나님의 복음이 복되고 감사하다. ☞

이단(異端, Heresy)/ 딤후3:10-11/ 20221005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번 훈계한 후에 멀리 하라 이러한 사람은 네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서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딤후3:10-11]

바울은 우리의 구원을 다시 확인하면서*[딤후3:3-7] 그 은혜를 힘써 누리라는 권고와 덧붙여 경계의 대상을 지목하였다.

이단(異端, Heresy)의 헬라이어 어원은 '스스로 취하고, 택하다'는 의미를 포함한다. 한자어 異端이 '끝이 다르다'는 뜻인 것처럼, 어느 누구도 정죄할 것이 없는 영역에 도달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정죄하는' 결과를 택한 자가 곧 이단이라고 디도서에 기록하였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 유대 종교인에게 예수가 이단이었다. *[행24:5]

사정은 오늘날도 같다.

특히 기독교 내에서, 정통 교회로 자칭하는 교회에서 자신의 정통 교리를 주장하면서 많이 사용되는 용어 중에 하나가 이단이다.

사실은 정통 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다른 결과에 이른 자가 이단이다. 만일 정통 교회가 말씀과 다른 결과에 이르게 한다면 이 조직은 이단이 아니겠는가?

'스스로 정죄하며 죄를 짓는 자'은 율법 아래 종교 활동 중인 종교인이다.

'스스로 정죄하며 죄를 짓는 곳'에 머물러 있는 종교인의 시각으로 '결코 정죄함이 없는 곳'*[롬8:1]에 이르렀다고 외치는 신자(信者)는 이단이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 받아 본 적이 없는 자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 받은 자들을 향하여 이단이라고 한다.

자신의 행한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얻은 구원이 아니면 자신의 옳은 행위에 매인, 자신을 스스로 정죄하는 죄인의 영역에서 벗어날 수 없다. ☞

그리심산과 에발산/ 신11:26-30/ 20221009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얻을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신11:29]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에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였다.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면 복을 누리고 듣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좇으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말씀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렸고 에발산의 저주가 그들을 덮어 버렸다.

네 눈을 들어 자산을 보라 너의 행음치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네가 길 가에 앉아 사람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렘3:2]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과 열심은 적신으로 드러난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리심산의 축복을 성취하고야 만다.

이스라엘의 패역이 드러난 곳, 에발산의 저주 위에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었다.

너희는 자산 위에 기호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로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사13:2]

내가 자산에 강을 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로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으로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사41:18]

결국 에발산의 저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세력으로 덮혀지고 이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의 힘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린다.

젖과 꿀을 먹고 마시는 안식의 세계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구원의 세계이다. ☞

노략질하는 이리/ 마7:15-20/ 20221012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찌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마7:15-18]

성경은 '모든 죄'를 사하셨다고*[골2:13] 하지만 아직 치리가 되지 못한 죄가 있다고 가르치는 거짓 교사가 있고, 성경은 "거룩함을 얻었다"*[히10:10]라고 성취된 구원을 전하는데, "거룩해져야 한다"라고 아직 성취되지 못한 구원을 가르치는 거짓 선생이 있고,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하지만 육신의 행위에 연루된 인위적인 종교 활동을 강요하는 거짓 목자들이 있고, 성령의 일을 사람이 대신 감당하려는 거짓 교회가 있다.

이들을 이끄는 거짓 세력은 외모를 양의 모습으로 꾸며 나타난다. 광명의 천사로, 그리스도의 사도로, 의의 일군*[고후11:13-15]으로…….

이 세력은 이간질하여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과 자유를 약탈하는 일을 한다.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과 자유는 좋은 나무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자들의 마음에 맺힌 열매이다.

노략질하는 이리는 오늘도 양의 모양에 집착하고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므로*[고후11:4] 가시와 엉겅퀴 숲과 같은 다듬과 얽매이는 삶의 열매를 맺게 한다.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다른 복음', 나쁜 열매이다. ☞

빌레몬과 오네시모/ 몬1:6/ 20221016

이로써 네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몬1:6]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는 주인 빌레몬에게 모종의 손해를 끼치고 도주하여 로마로 가 바울을 만나게 되었다.

바울은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골로새 교회에 있는 빌레몬에게 보내며 쓴 편지가 빌레몬서이다.

이전에는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무익하였으나 이제 교회 안에 모두에게 서로 유익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사귀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아니라 지극히 선한 목자 아래 믿음의 교제로 말미암음이다.

지극히 선한 일을 하신 예수를 아는 일은 그의 세계를 누릴 수 있는 힘을 공급한다.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관계의 시작과 과정이 어떠할찌라도 이 힘을 가진 믿음의 교제는 그 결과가 선하고 아름다울 수밖에 없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도의 권위가 있지만 결코 스스로 일을 주관하려고 하지 않는 것은 "선한 일이 억지로 되지 않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고 밝힌다.

'선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일이고 '선한 일'은 예수께서 성취하신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 선한 일에 함께하는 자들의 모임이다. ☩

형제에게 노하는 자/ 마5:22/ 20221019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1)라 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마5:22]

만일 모든 인생에게 초능력이 있어서 화를 내기만 하면 그 화를 유발한 대상이 죽어버린다면, 인생은 순식간에 멸종될 것이다.

이러한 초능력이 인생에게 없지만, '노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와 같은 범죄로 규정하는 하나님의 법을 근거로 모든 인생은 이미 '살인자'요 '살인 당한 자'들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형제에게 노하는 자, 살인자를 향한다.

입법자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신4:24]

아무도 이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모든 인생은 소멸의 현장에 있다.

이 율법에 대한 예수의 가르침은 듣는 자로 하여금 소멸의 근원을 밝힌다.

자신이 지옥 불에 해당이 되는 자로 알게 되었다면 심판이 임한 마음이고 율법에

다스려진 마음이다.

그리고 이 소멸의 현장에서 들을 수 있는 하나님 아들의 음성이 있다. *[\[요5:25\]](#) 卍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는 삶/ 롬15:1-3/ 20221023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롬15:3\]](#)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는 삶은 하나님 교회 안에 힘이 있는 자의 권세이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아니하시고 도리어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을 받으신 것처럼, 강한 자의 힘은 자신의 기쁨이 아니라 연약한 자를 섬기는 일을 위하여 소용된다.

남의 기쁨을 자신의 기쁨으로 여기는 지혜와 힘은 인생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다.

예수께서도 십자가에 오르시기 전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드렸고*[\[히5:7\]](#),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순종'이라는 강한 힘을 얻으시고 십자가의 영광에 참여하셨다.

이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이다.

하나님께서서는 연약한 인생을 위해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오르게 하셨다.

이 아들에게 순종하여 함께하는 연약한 인생을 기뻐 받으신다.

하나님의 기쁨, 연약한 자의 기쁨을 위하여 사는 기쁨이 이 땅에서 누리는 강한 자 그리스도인이 삶이다. 卍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 열 므나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 됄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하였더라 [눅19:12-14]

왕 국(王國)의 백성들을 향하여 귀인(貴人)과 왕(王)과의 신분은 많이 다르다.

그러나 지금 백성에게 귀인의 신분일찌라도 이후 왕권을 얻어 돌아올 자라면, 그 귀인의 신분이 왕으로 옮겨지는 중이고 백성도 마땅히 왕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왕국은 왕의 나라이다.

입법과 사법과 통치가 왕의 결정에 따른다.

따라서 왕국의 백성은 왕에 종속(從屬)된 신분이다.

만일 백성이 왕을 선택한다면 그 나라는 더 이상 왕국이 아니라 공화국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들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였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보내신 왕을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를 단 십자가에 못박았다.

이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할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은 이미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계명에 속한 무리가 되었기 때문이다. *^[막7:6-9]

그러나 모사(謀士)이신 예수께서 3년 왕권의 완성된 결과를 십자가에 나타내셨다. 모두가 왕으로 여기지 않는 그 능욕의 자리가 그 모든 자들의 죄를 사하시는 왕권을 나타내는 자리가 되었다. *^[호1:10, 롬9:26]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백성에게 왕이시다. ☞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소제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마12:43-45]

더러운 귀신(부정한 영)이 사람에게서 나와 쉴 곳(물이 없는 곳)을 찾았으나 얻지 못하고 있던 곳으로 돌아 와 보니 집이 비고 소제되고 꾸며져 있었다. 새로이 단장된 집은 더 더러운 귀신 일곱을 용납할 만큼 심히 악한 처소가 되었다.

예수께서 성경에 예고된 표적을 나타내시며 유대 땅에 오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할 수 없었다.

'표적되신 예수*[요6:26]'에게 다른 표적을 구하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무늬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꾸며진 가증한 종교 집단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더러운 여덟 귀신을 품고 사는 악한 세대는 겉과 속이 다른, 선한 모양으로 꾸며진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 집단만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하다.

더러운 귀신, 부정한 영, 죄의 세력이 나타나는 유일한 통로는 사람의 생각이고, 더 더럽고 가증한 세력이 찾는 곳은 선한 외모와 규모에 집착하는 종교 세력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인즉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눅11:39]

독사의 자식들이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마12:34]

겉을 선한 모양으로 꾸미는 것은 죄 가운데 태어난 모든 인생의 본능이다. *[요1:10]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본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일이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일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모양을 내는 일은 그 방향이 다르다.

하나님 앞에 최악은 성령을 거스르는 일, 훼방하는 일이다. ☹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 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삼1:3]

"영혼이 잘 된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젊은 시절의 아브람을 떠나 말씀에 이끌리는 아브라함의 세계에 이르게 하셨다.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창24:1]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된 삶의 결과는 범사에 복을 누리는 삶이었다.

이 아브라함의 삶을 "영혼이 잘 됨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삶"이라고 설명할 수 있지 않은가?

요한삼서 3절에 기록된 것처럼,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를 증거하며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이 "영혼이 잘 된 삶"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 할찌어다 [막5:34]

여인의 믿음은 여인의 혼이 하나님을 얻고 누리는 힘이 되었다. 혈루의 근원을 말려 버리신 예수께서 혈루병에 고통하는 여인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그를 건강케 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구원은 죄와 욕망에 매여 살던 우리 영혼을 이끌어 큰 평안과 영원한 건강을 누리게 하신 일이다. &

더 큰 은사, 제일 좋은 길/ 고전12:31/ 20221106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고전 12:31]

○ 사(恩賜, Spiritual gift, charisma; charisma)는 같은 성령으로 교회 안의 각 지체에게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약1:17]이고 섬김의 구체적인 실현이다.

더욱 '큰 은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일이고 사랑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리고 '제일 좋은 길'은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요일4:16]

이 사랑은 인생의 마음에서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그 사랑을 입는 자들의 마음에 사랑할 수 있는 힘이 형성 된다. 아버지의 사랑을 입은 아들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

만일 아들의 마음에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지 못한다면, 사랑하려는 인위적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이 자신에 대하여 어떠한가를 다시 확인하는 일이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은 옳은 자를 위한 사역이 아니다.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하여, 지금 자신을 능욕하고 못을 박은 사람을 포함한 모든 죄인을 위해 죽으셨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고후4:10]

하나님에 대한 패역이 크고 뚜렷하면 그 사랑도 크고 뚜렷하리라. ☞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엡2:8]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예수의 말을 듣게 된 헬루증 앓는 여인*[마9:20]이나, 소경 거지 바디매오*[마10:46]나, 흉악한 귀신에 들린 딸을 인하여 예수께 나아온 가나안 여인*[마15:22]의 마음에 형성된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되었다.

이 믿음은 '은혜'로 얻은 믿음이다.

이는 사람의 지혜, 이성, 총명으로 이해하고 납득하여 형성된 믿음이 아니다. 은혜로 얻은 믿음은 사람의 지혜와 분별이 무익한 지경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에 대한 '외경(畏敬)'과 함께 형성되는 믿음이다. *[창15:6, 히11:7]

인생이 피할 수 없는 모든 병과 고통과 사망에 이르는 결과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죄와 허물'을 설명하여 주는 그림자이다.

이 죄와 허물, 사망에 대한 인식은 인생으로 하여금 창조주를 기억하게 한다. *[전 12:1,7]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육체를 신뢰하는 자의 마음에 형성될 수 없다.

만일 사람의 지혜와 경험을 근거로 이해하고 납득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 안에 갇힌 하나님이다.

헬루증 앓는 여인, 바디매오, 가나안 여인의 마음에 얻은 믿음은 인간적인 지혜와 수단과 기대가 끝이 난 곳, 사람의 생각 밖에서 공급된 믿음이다. ☺

너는 또 여호와와 그의 손의 아름다운 면류관, 네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네 땅을 뿔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바가 될 것임이라 [사62:3-4]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결혼한 여자"라는 뜻의 이름인 '헵시바와 뿔라'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의 별칭(別稱)이다.

헵시바와 뿔라의 본래 호칭은 "버리운 자", "황무지"이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온의 공의와 예루살렘의 구원을 밝히 나타내시고 성취하신 결과, 그 영광의 광채는 아름다운 면류관과 왕관으로 나타났고 그 은총을 입은 자를 '헵시바, 뿔라'로 불러 주신다.

헵시바와 뿔라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나는 그 분과 결혼하였다"는 사실을 누리라고 주신 이름이다.

하나님이 주신 곡식을 '오직 추수한 자'가 먹고 그 식물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처럼*[사62:8-9], 헵시바와 뿔라는 그 구원의 이름을 누리는 자의 것이다.

예수께서 자신의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희롱하는 능욕의 세력을 잠잠히 받아 주시고 이들의 죄를 속하는 제사를 십자가에서 이루셨다.

이 가시 면류관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면류관이 되었고 시온에 세운 왕*[시2:6]의 왕관이 되었다. ☩

가인이 여호와와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늦 땅에 거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창4:16-17]

가인의 선택은 여호와를 떠나 아들의 성 '에녹'을 쌓는 일이었다.
이 선택은 하나님께서 가인을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의 '표'에 대한 거절이다.
가인은 하나님이 제시한 약속이 자신을 지켜주는 城이 될 수 없어서 '자신이 자신'을 지키는 삶의 城을 쌓았고,
이 성을 의지하는 삶의 결과는 '생존을 위한 싸움'이 전부가 되었다. *[창4:24]

여호와 하나님은 '존재와 힘', '생명'*[요1:4]의 시작이시다.
그러나 이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인생은 '생존'이라는 자생된 굴레에 갇히게 된다.

내 백성이 두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렘2:13]

하나님에 대한 두가지 악은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는 지경이 된 것'이다.
에녹 성은 하나님을 버린 인생이 스스로 쌓은 성이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는 영역이다.
그러나 이 성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그를 위한 山城이 되신다.

여호와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의뢰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나훔 1:7]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성을 쌓는 데 실패한 자, 소외된 자, 버려진 자, 더 이상 성을 쌓을 소망을 잃은 자들을 찾아 함께 하시고 그들의 성이 되어 주셨다. ☩

주의 힘과 구원/ 시21:1-2/ 20221201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을 인하여 기뻐하며 주의 구원을 인하여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 마음의 소원을 주셨으며 그 입술의 구함을 거절치 아니하셨나이대(셀라) [시21:1-2]

다윗은 주의 힘에 인한 구원을 기뻐하고 즐거움을 노래한다.
다윗이 누리는 이 은혜의 세계는 예수 그리스도 세계의 예시이다.

하나님, 히브리어 ‘에로힘[el-o-heem]’의 어원에서 ‘힘, 강하다’는 의미를 읽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은 ‘힘’의 열매이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오르실 힘을 얻으시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박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셨다. *[사53:12]

우리는 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생명을 얻었다.

생명을 얻은 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영원한 삶을 누린다. ☩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시22:1/ 20221204

내 하나님이며 내 하나님이며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
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시22:1]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27:46]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의 이 외침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상태임을 나타낸 탄식이다.

"왜 버리셨습니까?"라는 물음은 버려짐에 대한 참담함을 더욱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하여 성경이 말하는 간절한 대답은 '죄'이다.)

"버리셨나이까?"는 완료형 문장이다.

지금 예수는 버려진 영역에 속하여 있고*[롬5:12,14] 육체를 입은 마지막 아담의 신분*[고전15:45, 47]으로, 그리고 아람어 방언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응답하심과 구원을 구하고 있다.

결국 십자가 예수의 탄식을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예수는 "다 이루었다"*[요19:30]는 말씀으로 온 세상 죄의 심판을 대신 받으시는 속죄 양의 역할을 성취하셨다.*[요일 2:2]

예수께서는 이 수난의 잔을 원치 않으셨다.*[마26:39]

그러나 예수를 둘러싼, 능욕하는 무리와 가시 면류관과 채찍과 십자가에 못박히는 물리적인 고통이 있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시공(時空)에 이르렀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훼방거리다. 능욕의 세력은 힘센 황소처럼, 삼키려는 사자처럼 달려들고, 나는 물 같이 쏟아졌고,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마음은 찢물같이 녹았고, 나의 힘은 질그릇 조각같이 마르고, 혀는 잇들에 붙었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망의 진토에 던지셨다."

상상으로도 헤아리기 어려운 이 예수의 수난은 '온 세상 죄에 대한 샅'이다.

이 죄의 세력은 모든 인생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뼈 속 깊이 스며 있는 비진리의 영이고 미혹의 영으로 사람을 지배하고 있다.*[요일4:6]

이 악한 세력은 개처럼 예수를 둘러싸고 침 뱉고 찌르고 능욕하는 자와 함께 한다. 그리고 멀리 숨어 떨고 있는 제자들과 오늘 우리 육체에도 여전히 숨어 또아리 치고 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올라 화목 제물이 되셨다. 그리고 이 죄인들을 위하여 기도하셨다.*[사53:12]

하나님을 향하여 패역한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져야만 하는 존재임을 알게 된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유효하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짚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고후4:10] ㄴ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23:1-3/ 20221208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 가으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시23:1-3]

시편 22편이 ‘십자가의 시’라면 시편 23편은 ‘십자가 그늘 아래 쉬는 자들의 노래’이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늘은 하나님과 동행의 기점이고, 사권의 시작이고 완성이다. ☞

여호와의 것,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심이어/ 시편 24편/ 20221211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시24:1]

이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씀과 함께 만물을 생성하는 힘의 시작과 온 우주를 진동하는 지존자의 호흡을 느끼게 한다. *[시33:6]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심이어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것이 세워지고 건설되는 터는 바다와 강들이다.

셋째 날의 하나님은 천하의 물을 한 곳에 모아 물이 드러나게 하셨다.
그리고 드러난 땅 위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가 자라난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것이 아니니라 [히11:3]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시고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일의 근거이고 ‘터’이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터를 ‘바다’로 불러 노래한다.

작은 물이 모여 큰 물을 이루고 큰 물이 모여 바다에 이른다.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가난한 마음에 임한다.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가난한 마음을 위하여 ‘여호와와 의 것’이 준비되어 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 1:2-3] 은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한 자/ 시24:3-6/ 20221215

여호와와 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셀라) [시24:3-6]

바다와 같이 넓고 엄위한 하나님의 계획 위에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여호와와 의 산에 오를 자, 그 거룩한 곳에 설 자는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구제할 때 오른손의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마6:3]는 예수의 말씀은 손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마음에 관한 말씀임이 분명하다.

그리고 이 말씀은 육체를 입고 있는 인생의 마음으로는 구현해 낼 수 없는 하나님의 법도이다.

"청결한 마음"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마음의 세계이다.

죄와 욕망을 스스로 이길 수 없는 인생에게 "청결한 마음"은 원함에 머물러 있는 가상의 세계이다. *[마26:41]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롬7:18]

그러나 땅에 뿌리 박고 사는 뽕나무가 뽑혀 바다에 심겨지는 세계가 있다. *[눅17:6]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예수의 마음과 그 수난(受難)의 십자가는 이 땅에서 뽑혀 바다에 심겨지는 하나님의 세계이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2:5-8]

이 예수의 십자가와 함께하는 자는 예수의 마음을 품은 자이고,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고,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자이다.

예수를 품은 마음은 허탄하고 거짓된 자신과 세상에 머리 둘 곳이 없어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마음이다. *[마8:20, 고전11:1, 빌3:17-21]

이 마음은 더러운 것을 더러운 것으로 여기고 깨끗한 것을 깨끗한 것으로 여기는 청결한 마음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마5:8] ☞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시25:1]

바람이 없으면 풍향계는 할 일을 잃는다.

그러나 바람이 불면 풍향계는 맞바람을 향한다.

하나님의 사람은 환난의 때, 풍향계처럼 환난을 피하지 않고 도리어 환난을 향한다. * [시121:1-2]

거기에 환난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환난은 다윗의 영혼을 흔들어 깨워 하나님을 향하게 한다.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영혼은 하나님 안에 살아 있는 영혼이고, 찾지 않는 영혼은 깊이 잠들어 있거나 죽어 있는 영혼이다.

다윗의 영혼은 지금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도를 확인하고 하나님의 길을 배울 것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4절]

시편 103편에는 이 하나님의 도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기록되어 있다. * [시103:8-18]

그러나 만일 다윗으로 하여금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구하지 못하게 하는 세력이 있다면 이는 다윗의 원수임이 틀림없다.

이 원수의 정체는 소시의 죄와 허물이고, * [7절] 죄와 허물은 모든 육체의 체질이다.

육체로의 출생이 곧 환난의 시작이다. * [시51:5]

내가 지금 하나님의 도와 인자를 구하지 않는다면, 죽어 있든지, 잠들어 있든지 타락의 곳에 있다는 증거이다. ☩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취도다
[사9:2]

"환 영광림(歡迎光臨)"

중국에서 식당이나 상점 입구를 장식하는, 손님을 환영하는 이 문구는 손님을 '빛(光)으로 표하였다.

영리를 목적으로 써 붙인 '환영광림'의 용도는 "환영전림(歡迎錢臨)"이겠지만, 손님을 '빛'으로 맞이하는 표현은 지혜롭다.

이 땅에 오신 예수는 '참빛'으로 임하셨다. *[요1:9]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취도다"

벗긴 몸으로 매를 맞고 깊은 옥에 갇혀 착고에 채워진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였다. *[행16:25]

어둡고 죽음의 기운이 가득한 곳이지만 바울과 실라의 마음에 임한 빛이 있었고, 이 빛이 죄수들의 마음에도 비취어지면서 빛의 세력은 감옥에 가득차 있던 흑암의 세력을 몰아내고야 말았다.

어두운데서 빛이 비취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취셨느니라 [고후4:6]

동방 박사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만한 지식과 지위를 얻은, 나름대로 성공에 이른 사람들이었을 것이나, 어느날 그들에게 나타난 별의 빛은 그들이 어둠에 있는 줄 알게 하였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으신 참빛은 동방 박사들로 하여금 동방에 머물지 못하게 하였다.

서쪽으로 향하는 여정은 동방 박사들이 헤아리기 어렵고 두려운 선택이었으나, 하

나님께서 보이신 비전이 그들로 하여금 동방에서 떠나게 하였다.
박사들의 험한 여정 중 한 때, 자신을 인도하던 별을 잃었으나 동방을 떠나게 하신
하나님이 그들 위에 여전히 빛을 발하는 별을 보게 하였다.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마2:10]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시25:10/ 20221225

'여 호와의 모든 길', 구원의 사역은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는 질문으로 시작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아담으로 하여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근거이고 능력이고 결과이다.

"빛이 있으라"는 말씀은 "빛이 있었고"라는 말씀과 함께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 또 그 성취된 것에 성취될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결과가 언약을 증거한다.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는 말씀에 반응하는 자이고, 말씀이 믿어진 자이고, 말씀에 다스려진 삶이 나타나는 자이다.

"너는 흠이니 흠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이 믿어진 자는 생명을 구하는 반응을 나타낸다.

하나님의 언약이 그 언약을 믿는 자를 지키시고, 언약을 지키는 자는 언약의 증거를 나타낸다.

"빛이 있으라"는 말씀을 지키는 자는 '빛이 있는 삶'을 산다.

디매오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매오는*[막10:46-52] 여리고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를 구하였다.

바디매오에게 있어서 예수는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이다. 여리고에 오신 예수는 바디매오의 유일한 소망인 하나님 언약의 현현(顯現)이고 하나님과 바디매오와의 언약의 성취이다. *[사11:1, 35:5]
바디매오 마음에 임한 하나님의 언약과 증거는 바디매오로 하여금 겹옷을 내어버리고 예수께 뛰어 가게 하였고 예수는 바디매오와 함께하였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인자와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귀결된다. &

나의 죄악이 증대하오니/ 시25:11/ 20221229

"나의 죄악이 증대하오니 주의 이름을 인하여 사하소서" [시25:11]

다윗의 증대한 죄악은 무엇인가?

성경엔 죄에 관한 절대적인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그것은 모든 인생의 하나님에 대한 패역이고, 모든 사람은 사람의 속에 숨겨 있는 죄를 스스로 깨달을 수 없어서 재할 불가능한 절망적 존재라는 사실이다. *[단9:9, 렘17:9, 시19:12, 잠4:19, 렘13:23, 렘2:22]

아담의 범죄를 시작으로 예수를 능욕하여 십자가에 못박은 자들의 범죄에 이르기까지, 그 범죄 사실은 첫 사람 아담에 임한 죄열(罪孽)로 인한 하나님에 대한 패역이다. *[롬5:12, 사59:2, 시56:5]

다윗이 간음과 살인죄를 범하였을 때, 자신이 범한 죄에 대한 진원이 근본적인 신분에 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였다. *[시51:4-5]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음이여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 자백은 자신이 죄인으로 태어났고 죄인이므로 범죄하였다는 지극히 근본적이

고 절대적인 사실에 관한 고백이다.

결국 다윗의 간음과 살인은 하나님의 목전에 벌인 하나님에 대한 패역의 결과이다.

하나님 앞에 중대하지 않은 죄는 없다. *[마5:26]

모든 죄는 중대하고 죄의 값은 사망이다.

하나님께서서는 결코 죄를 심상히 여길 수 없으시다. *[나1:3]

하나님의 구원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구속의 사역이시기에 죄악을 지적하고 죄의 값을 제시하여 죽은 자로 하여금 죽은 자인 줄 알게 하신다.

하나님에 대한 패역은 죽은 자가 죽은 줄 모르거나, 죽은 자임을 거부하는 세력이다.

자신의 하나님에 대한 패역을 감각하는 자, 그 죄악을 중대하게 여기는 자에게 비로소 생명을 주시는 자의 음성이 들린다. *[요5:25]

"나의 죄악이 중대하오니 주의 이름을 인하여 사하소서"

생명을 주시는 자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다른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 [행4:12] ☞